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연결어미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희 선

2007년 8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연결어미 비교 연구

지도교수 김 태 곤

김 희 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6월

김희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 8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연결어미 비교 연구

김 희 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태 곤

이 연구는 「老乞大」라는 하나의 원본을 바탕으로 각각 16세기 초와 17세기 말에 언해·편찬됨으로써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이어지는 언어 변천을 한눈에 살피기에 이상적인 자료인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두 문헌에서 쓰이는 연결어미를 비교·검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이 연구는 연결어미의 종류와 의미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수를 뽑아내어 「翻譯老乞大」에서 「老乞大諺解」로의 변화 모습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Ⅱ장에서는 현대국어의 문법에 기초하여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연결어미를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학자마다 연결어미를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기능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학자들이 제시한 연결어미의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를 위한 연결어미의 분류에 기초로 삼았다. 그리고 보조적 연결어미와 어울리는 보조용언은 그 경우가 제한적이므로 보조적 연결어미와 어울리는 보조용언의 목록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결어미를 기능적 측면에서 대등적·종속적·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누고 다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연결어미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연결어미의 구체적인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대등적 연결어미를 의미에 따라 ‘나열’, ‘병행’, ‘상반’으로 나누어서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의 쓰임 양상과 변화를 고찰하였다. 2절에서는 종속적 연결어미를 의미에 따라 ‘원인·이유’, ‘조건·가정’, ‘양보’, ‘목적’, ‘의향·의도’, ‘희망·희구’, ‘한도’, ‘연속’, ‘양태’, ‘수단·방법’, ‘중단’, ‘긍정 대상’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쓰임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보조적 연결어미를 ‘-아/어’, ‘-고’, ‘-게’, ‘-디’로 파악하고, 이들과 결합하여 쓰이는 보조용언의 예들을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그리고 4절에서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비교 연구를 통한 결과를 추출해 내고 각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수를 표로 정리하였다.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를 비교 연구한 결과 두 가지의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음운론적인 조건이나 형태론적인 조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던 연결어미가 일부 형태로 통일되는 경향을 띠었다. 둘째, 연결어미가 간이화되는 경향을 띠었다.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엄격하던 연결어미의 교체 현상이 16세기 중세국어인 「翻譯老乞大」에서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만 근대국어인 「老乞大諺解」로 오면 음운론적·형태론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연결어미들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일정한 교체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서 연결어미의 종류 역시 근대국어로 올수록 간이화되는 경향을 띠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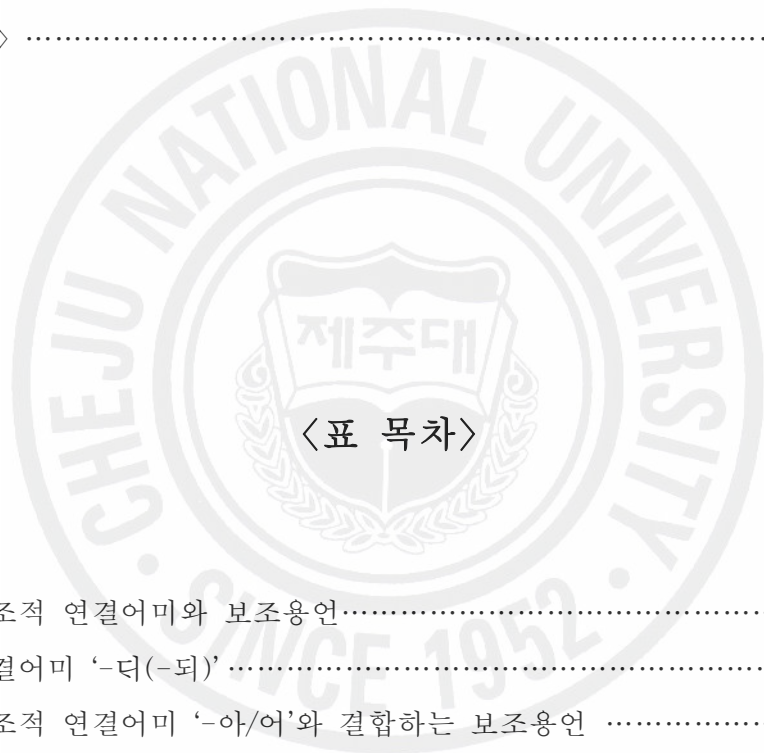
* 이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國文抄錄〉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선행 연구	3
II.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연결어미 분류.....	5
1. 중세국어의 연결어미	5
2. 근대국어의 연결어미	7
3. 보조적 연결어미	8
III.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연결어미 비교.....	9
1. 대등적 연결어미	9
1) 나열.....	9
2) 병행.....	12
3) 상반.....	13
2. 종속적 연결어미	15
1) 원인·이유.....	15
2) 조건·가정.....	23
3) 양보.....	30
4) 목적.....	35
5) 의향·의도.....	36
6) 희망·희구.....	37
7) 한도.....	39
8) 연속.....	40
9) 양태.....	41

10) 수단·방법	44
11) 중단	44
12) 긍정 대상	47
3. 보조적 연결어미	48
4. 연결어미 비교의 결과	54
IV. 결 론	61
〈참고문헌〉	65
〈Abstract〉	68



〈표 목차〉

〈표 1〉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	8
〈표 2〉 연결어미 ‘-디(-되)’	31
〈표 3〉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와 결합하는 보조용언	50
〈표 4〉 부정 대상의 보조적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보조용언	54
〈표 5〉 대등적 연결어미의 종류와 사용 빈도수	57
〈표 6〉 종속적 연결어미의 종류와 사용 빈도수	58
〈표 7〉 보조적 연결어미의 종류와 사용 빈도수	60

I. 서론

1. 연구 목적

언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歷史性이다. 즉,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어의 소리와 의미가 변하거나 문법 요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역사성은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변화 양상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연구의 자료인 「翻譯老乞大」(1517)와 「老乞大諺解」(1670)는 「老乞大」라는 하나의 원본을 바탕으로 160여 년의 간격을 두고 간행된 언해본이므로, 두 문헌을 비교하여 고찰한다면 언어의 변화 양상이 쉽게 드러날 것이다.

또한 우리말은 添加語로서, 우리말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적 특성은 膠着性이다. 여기서 첨가어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를 말하며, 이를 膠着語라고도 한다.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가 매우 발달한 교착어이기 때문에 조사와 어미에 의해 대부분의 문법적 기능이 실현되며 문법소인 어미와 조사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발화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대화체에서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가 대부분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므로 발화 상황에서 어떤 어미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하게 된다.

옛 文獻 중에서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는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어 발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연결어미의 쓰임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본래 한문 원본인 「老乞大」는 고려 말기부터 우리 나라에서 中國語를 배우는 데 필요한 회화책으로 쓰여 왔다. 그러므로 이런 「老乞大」를 번역한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는 일상적이고 현실감 있는 대화체로 기술되어 있어, 문어체로 된 다른 문헌에 비해 당시의 언어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생한 구어체의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구성 면에서도 두 문헌은 내용의 전개 양상이 같고 유사한 대화가 수록되어 있어서 구어체 안에서의 연결어미 사용 양상과 변화를 통시적으로 대조하고 고찰하기에 가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老乞大」라는 하나의 원본을 바탕으로 각각 16세기 초와 17세기 말에 언해·편찬됨으로써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이어지는 언어 변천을 한눈에 살피기에 이상적인 자료인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두 문헌에서 쓰이는 연결어미를 비교·검토한다. 연결어미의 종류와 의미, 분포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또한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수¹⁾를 뽑아냄으로써 「翻譯老乞大」에서 「老乞大諺解」로의 변화 모습을 더욱 잘 살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를 중심으로 두 문헌에 쓰인 연결어미 형태를 알아보는 문헌 중심의 방법론을 택한다. 먼저, 「翻譯老乞大」를 기준으로 연결어미를 추출하여 「老乞大諺解」에서 이에 해당하는 구절의 연결어미를 찾은 다음,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 뽑아낸 연결어미를 종류별로 1차 분류한다. 그리고 1차 분류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연결어미별로 사용 빈도수를 추출해 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 연구를 통해서 연결어미의 구체적인 쓰임 양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는 노걸대언해류²⁾에 대한 비교 자료인 백응진의 「老乞大」³⁾가 있었기에 1차 분류 작업이 매우 수월했다. 백응진의 자료에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걸대언해류의 영인본에서 보충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택했다.

1) 빈도수를 중시하는 이유는 고빈도의 형태는 저빈도의 형태에 비해 음운적, 의미적인 면에서 문법화를 더 촉발하기 때문이다. 안주호(2002),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고찰 -〈노걸대언해〉류를 중심으로-”, 『언어학』, 34, 한국언어학회, p.134.

2) 한문본 「老乞大」에 대한 각 시대별 번역본이나 언해본을 통틀어 ‘노걸대언해류’라고 한다.

3) 백응진(1997), 「老乞大」, 한국문화사.

3. 선행 연구

「老乞大」는 고려 말부터 조선 말기까지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중국어를 배우는 데 사용된 중국어 회화 학습 교재⁴⁾로, 언어의 변천에 따라 수정을 거듭하였기에 각 시대별로 언해된 여러 판본들이 전해진다. 14세기에 고려 상인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실제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당시에 사용되던 생생한 대화체의 口語로 기록한 여행기로, 그 내용이 여행과 교역 등에 관한 회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역사적인 면에서도 당시의 문물, 제도, 풍속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최초로 언해된 「翻譯老乞大」와 160여 년 뒤에 언해된 「老乞大諺解」(초간) 그리고 70여 년 뒤에 언해된 「老乞大諺解」(중간)와 50여 년 뒤에 언해된 「重刊老乞大諺解」가 있어서 국어사적으로 비교·연구하기에 좋다. 그 중에서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초간)는 원문의 한문 문장까지 동일하다.

노걸대언해류 문헌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언해된 당시의 언어에 대한 공시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로 간행된 언해본을 비교·검토하는 통시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등 많은 부분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노걸대언해류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을 살펴보면, 김문웅(1987)은 「老乞大諺解」와 「重刊老乞大諺解」의 비교를 통해서 근대국어 문법형태의 변화양상을 밝혔고 김완진(1976)은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 대해 음운, 어휘, 문법, 문장면에 걸친 광범위한 비교 연구를 하였다. 서재극(1967)은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어휘를 치밀하게 비교하고 그 특징적 사실을 낱낱이 다루고 있다.

동시대 다른 문헌들과의 공시적 관계에 대한 고찰을 보면, 강재진(1982), 이향주(1989)는 「朴通事」와의 비교를 시도했고 박태권(1967), 이병주(1965)는 「老朴集覽」과의 비교를 시도했다.

형태론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보면, 이승욱(1973)은 「老乞大諺解」, 「蒙語老乞大」,

4) 「翻譯老乞大 卷下」에서 41~55(「老乞大諺解 卷下」는 37~50)는 회화체 문장이 아니다. 산문체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도 여행 중에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일종의 처세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회화체로 이어지던 이야기의 줄거리 전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정광(2006),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신구문화사, p.349.

「清語老乞大」에서 나타난 조사와 종결어미를 고찰했다. 김형철(1977, 1980)은 형태와 활용을 중심으로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신한승(1991)은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 「重刊老乞大」의 물음씨끝에 대하여 다루었다. 석주연(1998)은 「老乞大」와 「朴通事」의 이본들에 나타난 선어말어미 ‘-거/어-’에 대하여 다루었다.

한편, 백응진(1997)은 「翻譯老乞大」(1517)⁵⁾, 「老乞大諺解」(1670), 「清語老乞大」(1765), 「蒙語老乞大」(1766)의 노걸대언해류 자료를 비교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정광(2006)은 「原本老乞大」를 발굴⁶⁾하고는 이 원본과 「翻譯老乞大」·「老乞大諺解」를 현대어로 해석한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를 펴냄으로써 노걸대언해류 해석에 커다란 성과를 보였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노걸대언해류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형태적인 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면서도 연결어미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 권숙도(1985)는 노걸대제서의 번역어에 나타난 서법어미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주로 종결어미에 치중한 면이 있다. 손성지(1992) 역시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 보이는 어미체계에 대해서 연구하였지만 연결어미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이다. 김성란(2003)도 노걸대언해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종결어미에 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노걸대언해류에 대한 연구 중에서 연결어미에 관한 연구를 하여 16세기와 17세기의 국어의 형태론 연구에 일조를 하려고 한다.

5) 「翻譯老乞大」의 간행 연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백응진(1997)은 「老乞大」에서 간행 연도를 1512년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김형배(1998)는 간행 연도를 1506년에서 1517년 사이라고 밝혔다. 김형배의 의견대로라면 간행 연도가 아무리 늦어도 1517년 이전이므로 여기에서는 1517년으로 통일한다. 한말연구학회(1998), 김형배, “노걸대언해”, 「국어사 강독선」, 도서출판 박이정, pp.239~240.

6) 1998년에 고려 말에 편찬된 元代 북경지역의 漢兒言語를 반영하는 「原本老乞大」가 정광에 의해서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져 이웃한 일본과 중국에서 대단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정광(2006), 앞의 책, p.13.

Ⅱ.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연결어미 분류

용언(동사, 형용사)과 서술격조사의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결합하는 현상을 活用이라고 하는데, 활용어는 어간이 중심이 되어 끝을 여러 가지로 바꾸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 활용어의 어간에 붙는 가변요소를 語尾라고 한다.

어미는 단어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뉘고,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나뉘는데, 비종결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 나뉜다. 비종결어미는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지 않는 어말어미로서 문장의 접속이나 전성의 기능을 띤 어미를 말한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연결어미를 분류하는 방식은 현대국어와 같다. 연결어미는 기능에 따라 크게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로 나뉘는데, 학자에 따라 대등적·종속적·보조적으로 나뉘기도 한다.⁷⁾

1. 중세국어의 연결어미

고영근(2007: 154~155, 368~371)은 중세국어의 연결어미 체계를 현대국어에 준하여 세웠다. 이들 연결어미들은 어간의 모음이나 끝소리의 종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고 동사의 종류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것이 많다.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기능에 따른 분류>

- 1) 대등적 연결어미: -고, -며, -며서, -나, -건마른, -거니와, -거나~-거나
- 2) 종속적 연결어미: -니, -오더, -르씩, -관더, -거든, -거늘, -고져, -디비 ...
- 3) 보조적 연결어미: -어/아, -기/게, -디, -고

7) 대등적·종속적으로 2분한 경우: 안병희·이광호(1997),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대등적·종속적·보조적으로 3분한 경우: 고영근(200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의미에 따른 분류>

- 1) 한 가지 이상의 것을 나열하는 것: -고, -곡, -며, -며서
- 2) 서로 상반되거나 양보함을 보이는 것: -나, -건마련, -어도, -고도,
-거니와, -디뵈, -건뎡
- 3) 조건이나 가정을 보이는 것: -ㄴ댄, -ㄴ텐, -온뎡, -란디, -거든, -면
- 4) 설명, 이유, 원인을 보이는 것: -니, -르씩, -어, -ㄴ대, -거늘, -판디, -라
- 5)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이나 인용을 보이는 것: -오더
- 6) 앞뒤 일을 비교하는 것: -곤, -노니
- 7) 다른 일이 더 보태지거나 점점 더해감을 보이는 것: -드록, -디웃, -르스록
- 8) 비슷함(비유)을 보이는 것: -듯, -드시
- 9) 희망, 의도, 목적을 보이는 것: -고져, -과더, -긋고, -오려, -라
- 10) 한 가지 일이 다른 일로 바뀌는 것을 보이는 것: -다가, -라, -거샤, -고샤,
-락, -ㄴ다마다, -다가며
- 11) 어느 쪽이나 상관없이 있음을 보이는 것: -나, -거나
- 12) 동작이 되풀이 됨을 나타내는 것: -곰, -엄

이상은 연결어미를 12개의 의미범주에 따라 묶었지만, 이 가운데는 다의적인 것도 있고 기능에 있어서도 반드시 연결어미라고 하기 어려운 것도 없지 않다.

한편, 안병희·이광호(1997: 304~308)는 중세국어에서 연결어미를 분류⁸⁾하면서 연결어미란 용어 대신 접속 기능을 가진 부동사어미⁹⁾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문장과 문장을 접속시켜 주는 통사론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연결어미를 접속어미라 불렀다. 대등접속어미는 두 문장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로 접속되는 어미를 말하고, 종속접속어미는 대등접속어미와 같이 부동사어미의 일부를 가리키는데 다른 문장에 종속적인 관계로 접속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부르는 용어이다. 즉, 대등접속어미들이 두 문장을 대등한 관계로 접속시켜서 문장을 확대하는 데 반하여, 종속접속어미는 두 문장을 접속시켜 문장을 확대하는 것은 같으나 종속접속어미가 연결되는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보조적 접속어미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종속적 접속어미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8) 안병희·이광호(1997)는 연결어미를 의미에 따라서 '나열', '병행', '양태', '원인', '조건', '양보', '목적', '의향', '원망', '한도', '더해감', '연속', '도달', '부정 대상', '긍정 대상'으로 나누기도 했다. 앞의 책, pp.249~257.

9) 부동사어미, 접속어미, 이음씨끝은 모두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대등접속어미 목록>

-고(-곤, -곡, -곰), -며(-명, -며서), -나, -간/건믄, -거나(-어나)

<종속접속어미 목록>

- 1)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어미: -니, -때, -눌/늘, -르씨, -판디(-곤대)
- 2)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어미: -면, -거든/거든, -ㄴ대, -란디
- 3)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어미: -오디/우디, -ㄴ들, -니와, -르썬딩, -르선딩
- 4)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어미: -라
- 5) 의향을 나타내는 접속어미: -오려/우려, -려
- 6) 원망을 나타내는 접속어미: -고져(-오져), -아져, -과더, -과더여, -긋고
- 7) 한도를 나타내는 접속어미: -드록(-도록)
- 8) 더해감을 나타내는 접속어미: -디웃, -르스록
- 9) 동작의 연속을 나타내는 접속어미: -라, -락, -ㄴ다마다
- 10) 긍정 대상을 나타내는 접속어미: -디빰(-디워, -디외, -디웨)
- 11) 양태를 나타내는 접속어미: -아/어, -악/억, -암/엄
- 12) 보조적 접속어미: -아/어, -고(-오), -게/기(-에/의), -디(-들, -ㄴ동, -드란)

2. 근대국어의 연결어미

이광호(2004: 474~479)는 중세국어 분류를 기준으로 다시 근대국어의 연결어미 체계를 분류¹⁰⁾하였는데, 이 역시 문장의 접속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보조적 접속어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대등접속어미 목록>

-고, -고셔, -며서, -나, -건마는, -거나(-어나) 등등

<종속접속어미 목록>

- 1)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접속어미: -니, -때(띠), -거늘(늘), -르씨
- 2)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접속어미: -면, -거든(거든), -ㄴ대(ㄴ디), -야

10) 이광호(2004)는 연결어미를 의미에 따라 ‘나열’, ‘동시병행’, ‘양태’, ‘원인’, ‘조건’, ‘수단·방법’, ‘양보’, ‘목적’, ‘의향·의도’, ‘원망·회구’, ‘한도’, ‘중단’, ‘더해감’, ‘연속’, ‘시킴·도달’, ‘부정 대상’, ‘긍정 대상’의 어미로 더 세분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근대국어문법론』, 태학사, pp.376~398.

- 3) 양보를 나타내는 종속접속어미: -더(되), -느 들, -르뿐이언덩, -르디언덩,
-르선덩
- 4) 한도를 나타내는 종속접속어미: -도록
- 5) 긍정 대상을 나타내는 종속접속어미: -디워
- 6) 중단 대상을 나타내는 종속접속어미: -다가

3. 보조적 연결어미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대등적·종속적 연결어미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이어짐에 참여하는데 반해, 보조적 연결어미는 그 쓰임 양상이 좀 다르다. 보조적 연결어미는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하여 동사구를 이루는 데 참여하는데, 분포가 매우 제한적이며 보조적 연결어미와 어울리는 보조용언도 그 경우가 제한적이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보조적 연결어미와 함께 쓰이는 보조용언의 목록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¹¹⁾

〈표 1〉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

연결어미 -아/어	연결어미 -고	연결어미 -게	연결어미 -디
<진행> (어) 가다 (어) 오다	<보유> (어) 두다 (어) 놓다 (어) 가지다	<진행> (고) 잇다 <종결> (고) 나다	<피동> (게) 디외다 <사동> (게) 흐다
<종결> (어) 나다 (어) 내다 (어) 버리다	<부정> (어) 말다	<부정> (게) 말다	<부정> (디) 아니흐다 (디) 못흐다 (못흐다) (디) 말다
<시행> (어) 보다	<당위> (어) 흐다		
<봉사> (어) 주다	<상태> (어) 잇다(이시다) (어) 겨시다		

11) 남기심·고영근(2005)이 제시한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목록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pp.121~127.

Ⅲ.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연결어미 비교

여기에서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¹²⁾에서 쓰인 연결어미를 비교·고찰하기 위해서 현대국어의 연결어미 분류 방식을 도입한다. 기능에 따라서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분류하고, 다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연결어미를 세분하여 각각의 연결어미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16세기 초의 중세국어인 <翻譯老>와 17세기 말의 근대국어인 <老諺>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말의 연결어미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도 알아본다.

1. 대등적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는 선행문장과 후행문장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로 연결되는 어미를 말한다. 이 때,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은 절이 되는 것이다. <翻譯老>와 <老諺>에서 쓰이는 대등적 연결어미는 ‘-고(-오)’, ‘-고셔’, ‘-니’, ‘-며’, ‘-며셔’, ‘-나’, ‘-건마른(-건마른, -언마른), -건마논(-언마논)’이 있는데, 이를 의미적으로 분류하면 ‘나열’, ‘병행’, ‘상반’으로 나눌 수 있다.

1) 나열

(1) -고(-오)

‘-고’는 두 문장의 행동이나 사건이 契機的이거나 同時的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나열하는 기능을 갖는 연결어미이다. ‘-고(-오)’가 쓰인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앞으로는 「翻譯老乞大」를 줄여서 <翻譯老>, 「老乞大諺解」를 줄여서 <老諺>이라고 약칭한다.

- (1) ㄱ. 서품쓰기 흐고 서품쓰기 못고 년구히기 흐고 년구히기 못고 글 이피
흐고 글 입피 못고 스승님 얹피 글 강흐노라 (翻老 上 3)
 ㄴ. 서품쓰기 흐고 서품쓰기 못고 년구히기 흐고 년구히기 못고 글 옴기
흐고 글 옴기 못고 스승님 얹피셔 글을 강흐노라 (老諺 上 3)
- (2) ㄱ. 서울 가 다 폴오 正月에 高唐의 가 (翻老 上 15)
 ㄴ. 서울 가 다 폴고 正月에 高唐의 가 (老諺 上 13)
- (3) ㄱ. 우리 어머니는 형이오 더의 어머니는 아시라 (翻老 上 16)
 ㄴ. 우리 母親은 형이오 더의 母親은 아이라 (老諺 上 15)

‘-오’는 ‘-고’의 이형태이다. 중세국어에서는 ‘ㄱ’으로 시작하는 ‘-고’ 등의 어미가 받침 ‘ㄷ’, 하향이중모음 ‘ㅣ’(y)로 나는 용언, 서술격조사의 어간 ‘이-’ 그리고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는 ‘ㄱ’이 탈락하여 ‘오’로 교체되었는데 (2ㄱ), (3)을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2ㄱ)과 (2ㄴ)을 비교해 보면, <老諺>에서는 ‘-고’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7세기 근대국어에서 ‘-고’가 받침 ‘ㄷ’ 다음에서도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 (4) ㄱ. 각각 물기를 박 가지고 박 우회 흔 오릿 ㄱ는 노흘 미얏느니 (翻老 上 36)
 ㄴ. 각각 물 깃는 박을 가지고 박 우회 흔 오리 ㄱ는 노흘 미얏느니
 (老諺 上 33)
- (5) ㄱ. 은 흔 냥 두 돈에 혜오 고로 흔 피렌 야청의논 (翻老 上 14)
 ㄴ. 銀 흔 냥 두 돈에 혜고 綾 흔 필엔 야청의논 (老諺 上 13)
- (6) ㄱ. 우리 여기 물 자바 미오 짐 브리우고 음식 푼는 덤에 가져 (翻老 上 61)
 ㄴ. 우리 여기 물 자바 미고 짐 브리오고 음식 푼는 덤에 가자 (老諺 上 55)

(4)를 보면, 용언의 어간이 ‘ㅣ’인데도 ‘ㄱ’이 탈락되지 않는다. 그것은 (4)의 ‘가지-’는 단모음 ‘ㅣ’(i)로 끝나는 동사 어간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5ㄱ, 6ㄱ)의 ‘혜-’, ‘미-’는 하향이중모음 ‘ㅣ’(y)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오’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16세기의 문헌인 <翻老>에서도

15세기에서 나타나던 음운론적인 교체 조건¹³⁾이 지켜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근대국어인 <老諺>으로 오면 (2ㄴ, 5ㄴ, 6ㄴ)에서 알 수 있듯이 ‘ㄱ’이 탈락하여 ‘-오’로 바뀌어야 하는데도 ‘-고’가 쓰이고 있다. 이것은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음운론적인 교체 조건에 상관없이 ‘-고’의 쓰임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고’의 쓰임이 <飜老>에서는 176회이던 것이 <老諺>에서는 255회로 늘어난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사용 빈도수를 살펴보면, <飜老>에서는 ‘-고’ 176회, ‘-오’ 100회이고 <老諺>에서는 ‘-고’ 255회, ‘-오’ 44회이다.

(2) -고셔

‘-고셔’는 나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에 보조사 ‘-셔’가 연결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 때, ‘-셔’는 강조나 단정의 의미를 첨가한다. 중세·근대국어의 다른 문헌에서는 ‘-고셔’의 예가 쉽게 확인되나 <飜老>와 <老諺>에서는 각각 1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7) ㄱ. 므스뵐 어리워 가지고셔 디답호요디 뼈도 내 천 브며 (飜老 下 49)
ㄴ. 므음을 어리워 가지고셔 디답호여 니로디 뼈도 내 천을 브고 (老諺 下 44)

(3) -니

‘-니’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별여 놓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니~-니’ 처럼 ‘-니’가 두 번 쓰이면서 동사구를 이루는데 나열의 의미가 강하다. 어간에 바로 붙기도 하고 선어말어미를 앞세우기도 하는데 대개는 보조용언 ‘-호-’와 호응한다. 그러나 (8)의 경우에는 보조용언 ‘-호-’는 보이지 않으며, 형용사 어간 ‘-올호-’와 ‘-외-’에 연결되어 쓰이고 있다. ‘-니’의 쓰임을 다음의 <飜老>에서 발견할 수 있다.

- (8) ㄱ. 님 올호니 외니 니르디 말라 (飜老 下 43)
ㄴ. 님의 是非 닐으디 말라 (老諺 下 39)

13) 고영근(2007)은 ‘ㄱ’과 ‘ㅇ’의 교체 조건을 음운론적으로 보지 않고 형태론적으로 제약되어 있다고 보았다. 앞의 책, p.139.

2) 병행

(1) -며

‘-며’는 두 문장의 행위가 단순히 병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며’는 기원적으로 명사형어미 ‘口’과 열거를 뜻하는 보조사 ‘-여’의 결합으로 추정¹⁴⁾하는데 그 의미는 현대국어와 같다.

- (9) ㄱ. 도죽들히 네의 천 이시며 천 업슨 주를 엇디 알리오 (飜老 上 27)
ㄴ. 도적들히 네의 천 이시며 천 업스믈 엇디 알리오 (老諺 上 24)
- (10) ㄱ. 콩은 언머의 혼 마리며 딥픈 언머의 혼 못고 (飜老 上 18)
ㄴ. 콩은 언마에 혼 말이며 딥픈 언머의 혼 못고 (老諺 上 16)
- (11) ㄱ. 던디며 집들 불모 드리니 모매 니블 것도 업스며 이베 머글 것도 업스니 (飜老 下 55)
ㄴ. 던디며 집을 불모 드리니 몸애 니블 것도 업스니 입에 먹을 것도 업스니 (老諺 下 50)

‘-며’는 대부분이 용언의 어간과 직접 결합한다. (9)는 용언의 어간에 ‘-며’가 결합한 형태로 ‘-며’는 두 문장의 행위를 각각 단순한 병행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경우, ‘천 이시’와 ‘천 업슨(업슴)’이라는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가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는 것이다. (10)의 경우는 서술격조사의 어간 ‘이-’에 ‘-며’가 결합한 것이다. 그리고 어간이 모음이나 받침 ‘ㄹ’이 아닌 경우에는 매개모음 ‘-으/으-’가 삽입되는데 (11)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며’는 현대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도 그 쓰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飜老>와 <老諺>에서의 사용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飜老>가 58회, <老諺>이 43회로 <飜老>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2) -며셔

‘-며셔’는 병행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며’에 보조사 ‘-셔’가 결합된 형태로 ‘-며

14) 안병희·이광호(1997), 앞의 책, p.250.

서'는 현대국어의 '-면서'로 이어진다. 그런데 단순히 병행을 나타내는 '-며'와는 달리 '-며서'는 앞문장의 행위와 뒷문장의 행위가 동시에 병행되고 있어 기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다음의 (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2) 가. 더 三絃子 ㅼ고 거긔말 ㅎ는 놉들홀 ㅎ야 ㅎ놀이며서 거긔 ㄹ러적 브
르긔쵸디 (飜老 下 54)
나. 더 줄풍뉴 ㅼ고 거긔말 ㅎ는 놉들로 ㅎ여 놀이ㅎ며서 거긔 ㄹ러 소의
로 브르되 (老諺 下 49)

<飜老>와 <老諺>에서는 '-며서'의 쓰임이 적어서 사용 빈도수가 <飜老>는 3회이고 <老諺>은 1회이다.

중세국어에서는 병행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리며', '-명'이 더 있어서 '-며', '-리며', '-며서', '-명' 등이 다양하게 쓰였지만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며', '-며서'로 단순화되었고, 이것이 현대국어에서의 '-며, -면서'로 남게 된 것이다.

3) 상반

(1) -나

'-나'는 상반되거나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형태와 쓰임이 현대국어와 동일하다. 두 문장 사이가 '-나'로 연결되면 선행절의 의미가 상반되거나 양보의 뜻을 갖게 되고 그 결과 후행절은 의미적인 한정을 받게 된다.

- (13) 가. 小人이 비록 나히 하나 어느 슈레홀고 (飜老 上 64)
나. 小人이 비록 나히 하나 엇디 곳 슈레호료 (老諺 上 57)
- (14) 가. 제 ㅄ슴 조초 니르나 마나 호나므라느니샤 살 님재라 (飜老 下 31)
나. 제대로 니르나 마나 혼느므라나이야 살 님재라 (老諺 下 28)

그런데 (14)에서는 '-나'가 두 번 있는 '-나~-나'의 형태로 쓰여 동사구를 이루는데, 이 경우는 상반되거나 양보의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아무 것이나

상관없이 선택함을 의미한다.

- (15) 가. 드리 어두으니 일어나 드라나 커나 흐야 갈 길 머물올가 접페라
(飜老 上 58)
나. 들이 어두오니 迷失 흐야 드라나 갈 썰 머물올가 저페라 (老諺 上 52)

- (16) 가. 우리 가면 혹 이르 거나 혹 늦 거 낫 둥에 그저 테 가 자고 가져
(飜老 上 10)
나. 우리 가면 혹 일 으나 혹 느 즈 나 그저 더 괴 자고 가 자 (老諺 上 9)

(15가, 16가)의 경우는 ‘-나~-나’에 선어말어미 ‘-거-’가 결합되어 ‘-거나~-거나’의 형태로 실현되는 것인데 이 경우는 각각 ‘흐다’와 ‘둥에’에 호응하고 있다. <老諺>에서는 ‘-거나~-거나’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빈도수를 보면, ‘-나’는 <飜老> 3회, <老諺> 4회이고 ‘-나~-나(-거나~-거나)’는 <飜老> 3회, <老諺> 2회이다.

(2) -건마른(-건마른, -언마른), -건마논(-언마논)

‘-나’가 연결어미로서 동사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연결어미 ‘-건마른’은 동사구를 구성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고 언제나 두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만을 한다. 중세국어의 ‘-건마른’은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건마논’으로 바뀐다. 그리고 나열의 연결어미 ‘-고’의 경우처럼 ‘ㄱ’이 적절한 음운환경에 따라 탈락하는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현상에 따라 ‘-건마른, -건마논’이 ‘-언마른, -언마논’으로 바뀐다.

- (17) 가. 내 본디 밧 괴 일 빠 리 엿 건 마 른 흐 마 나 그 내 네 다 하 빌 시 (飜老 上 54)
나. 내 본디 밧 괴 일 밭 이 엿 건 마 논 임 의 나 그 내 네 그 저 하 비 니
(老諺 上 48)

- (18) 가. 내 아리 흔 두 번 든 년 마 른 다 니 즈 니 어 디 싱 각 흐 야 이 시 리 오
(飜老 上 60)
나. 내 아래 흔 두 번 든 년 마 논 다 니 저 시 니 어 디 싱 각 흐 리 오
(老諺 上 54)

- (19) 가. 바들디면 닳량을 바도련마론 고든 갑슨 녀량이니 은을 가져 오면 곧
그제라 (飜老 下 29)
- 나. 만일 썩오면 닳량을 썩오려니와 고디식흔 갑슨 녀량이니 은을 가져 오
미 곳 올흐니라 (老諺 下 27)

‘-건마론’은 현대국어로 ‘-건마는’이라는 뜻이다. 표기에서 특이한 것은 (17ㄱ)에서 보이듯이 ‘-건마론’이 나타나고 있는 점인데, 이는 제 2음절 이하에서 ‘·’의 소실을 보여주는 예로써 16세기 초에 제 2음절 이하에서 ‘·’가 소실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사용 빈도수를 보면, ‘-건마론(-건마른, -언마론)’은 <飜老>에서 3회이고 ‘-건마논(-언마논)’은 <老諺>에서 2회이다. 중세국어인 <飜老>에서는 ‘-건마론’ 형태로 쓰이고 근대국어인 <老諺>에서는 ‘-건마는’ 형태로 쓰이고 있다.

2. 종속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는 다른 문장에 종속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문장을 확대시키는 어미이다. 즉, 대등적 연결어미가 두 문장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하여 문장을 확대하는 데 반해, 종속적 연결어미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데 있어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순서를 바꿔 버리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특성을 지닌다. 종속적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에 비해 형태와 기능이 훨씬 다양하다.

1) 원인·이유

(1) -니

‘-니’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이다.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의 특징은 선행절 사건시가 후행절 사건시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서 대부분 선행절이 후행절 사건의 배경이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선행절의 상

황시가 후행절의 상황시보다 앞서는 것 자체가 문법화 과정에서 ‘원인’이나 ‘조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¹⁵⁾

- (20) ㄱ. 너희 兩姨에서 난 형데라 흐니 이 친동생 兩姨가 이 동생 兩姨가
 (翻老 上 16)
 ㄴ. 너희 兩姨의게 난 兄弟라 흐니 이 친동생 兩姨가 이 同姓 六寸 兩姨가
 (老諺 上 14)

- (21) ㄱ. 우리 다 가면 이 방의 사름 업스니 맛당티 아닌 듯하다 (翻老 上 33)
 ㄴ. 우리 다 가면 이 房의 사름 업스니 맛당티 아닌 듯하다 (老諺 上 30)

- (22) ㄱ. 지비 진실로 조브니 자디 못흐리라 (翻老 上 49)
 ㄴ. 집이 진실로 조브니 자디 못흐리라 (老諺 上 44)

- (23) ㄱ. 내 넷 주인 지비니 우리 그저 여긔 브리저 (翻老 上 17)
 ㄴ. 내 넷 主人 집이니 우리 그저 여긔 브리오라 가자 (老諺 上 15)

(20, 21, 22)는 모두 용언 어간에 곧바로 ‘-니’가 결합된 형태인데, 선행 용언에 받침이 있으면 매개모음 ‘-으/으-’가 삽입된다. 그런데 모음조화가 잘 지켜져 음운론적으로 교체되던 15세기 중세국어와는 달리 16세기 이후 모음조화가 문란해지면서 ‘-으/으-’는 양성이나 음성이라는 규칙성과 상관없이 쓰이고 있음이 (21, 22)를 통해서 드러난다. (23)은 서술격조사의 어간 ‘이-’와 결합한 것이다.

‘-니’는 형태적으로 다양한 선어말어미와 결합한다.

- (24) ㄱ. 한 짜해 니기 든니디 못흐야 잇노니 네 모로매 나를 드려 벌 지셔 가
 고려 (翻老 上 7)
 ㄴ. 漢人짜히 니기 든니디 못흐였노니 네 모로미 나를 드려 벗 지어 가
 려 (老諺 上 7)

- (25) ㄱ. 이 친동생 兩姨에서 난 형데로니 우리 어미는 형이오 (翻老 上 16)
 ㄴ. 이 親同生 兩姨의게 이 弟兄이로니 우리 母親은 형이오 (老諺 上 15)

15) 구현정(1999), “조건 범주의 문법화”, 『우리말 의미학』, 4, 우리말 의미학회.

(24)의 경우는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오/우-’와 결합한 것이다. ‘-오/우-’는 주로 중세국어에서 쓰이던 어미인데 ‘-니’와의 결합 양상이 <老諺>에서도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24ㄱ)을 분석하면 ‘잇-(형용사)+-느-(현재 시상 선어말어미)+-오-(의도법의 선어말어미)+-니(연결어미)’이다. (25)의 경우는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오/우-’가 서술격조사의 어간 ‘이-’ 뒤에서 ‘-로’로 변한 것이다.

- (26) ㄱ. 내 드로니 얹피 길 어렵다 흐느다 (飜老 上 26)
 ㄴ. 내 드르니 얹피 길히 머흐다 흐더라 (老諺 上 24)

근대국어에 오면 ‘-오/우-’가 잘 쓰이지 않는다. (26ㄱ)과 (26ㄴ)을 비교해 보면 (26ㄱ)에서는 ‘-오/우-’가 쓰였지만 (26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그런데 ‘-오/우-’의 쓰임 양상을 <飜老>에서는 쓰이고 <老諺>에서는 쓰이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중세국어인 <飜老>에서는 대체로 ‘-오/우-’가 잘 쓰이지만 다음의 (27ㄱ)의 경우처럼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근대국어인 <老諺>에서는 ‘-오/우-’가 잘 쓰이지 않지만 앞의 (24ㄴ, 25ㄴ)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16세기 초의 중세국어인 <飜老>에서는 ‘-오/우-’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17세기 말의 근대국어인 <老諺>에 오면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7) ㄱ. 형님 일즉 아느니 서울 몰갑시 엇더흔고 (飜老 上 8)
 ㄴ. 형은 일즉 아느니 서울 몰갑시 엇더흔고 (老諺 上 8)

- (28) ㄱ. 뒤후로는 덤에 다들디 못흐리니 우리 그저 데 드러 자고 가저 (飜老 上 10)
 ㄴ. 뒤호로 덤에 다들디 못흐리니 우리 그저 더기 드러 자고 가자 (老諺 上 9)

‘-니’는 과거·현재·미래의 시상법 선어말어미와도 활발하게 결합한다. (27)은 현재 시상의 선어말어미 ‘-느-’와 결합한 것이고 (28)은 미래 시상의 선어말어미 ‘-리-’와 결합한 것이다.

- (29) ㄱ. 이러툃 흐면 내 니건 히 서울 잇다니 잡시 다 혼 가지로다 (飜老 上 9)
 ㄴ. 이러툃 흐면 내 前年에 서울 잇더니 잡시 다 혼 가지로다 (老諺 上 8)
- (30) ㄱ. 혼곶 ㄷ리 물어디여 잇더니 이제 고태 잇는가 (飜老 上 26)
 ㄴ. 혼 곶 ㄷ리 물어디여 잇더니 이제 고태는가 (老諺 上 23)
- (31) ㄱ. 네 널오더 일빅 열근이라 흐더니 그 열근은 귀 어디 잇는뇨 (飜老 下 58)
 ㄴ. 네 널오더 일빅 열근이라 흐더니 더 열근은 쏘 어디 잇는뇨 (老諺 下 52)

(29, 30, 31)은 과거 시상의 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한 것이다. (29ㄱ)에서 ‘-니’ 앞에 ‘-다-’가 온 것은 중세국어에서 ‘-더-’는 선어말어미 ‘-오/우-’와 결합할 때 ‘-다-’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9ㄴ)에서는 ‘-오/우-’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더니’의 형태를 보인다. 과거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 있어서 <飜老>에서는 ‘-다니’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30ㄱ, 31ㄱ)에서 보이듯이 ‘-더니’로 쓰인 경우도 드물게 나타난다. <老諺>에서는 (29ㄴ, 30ㄴ, 31ㄴ)처럼 거의 ‘-더니’의 형태를 보인다.

- (32) ㄱ. 네 호마 北京 향호야 가거니 나는 高麗人사르미라 (飜老 上 7)
 ㄴ. 네 이피 北京 향호야 갈작시면 나는 高麗人사롭이라 (老諺 上 7)
- (33) ㄱ. 네 에엿비 너기교라 너는 일 아는 사르미어니 이 느즌 디 히도 디는다 (飜老 上 49)
 ㄴ. 네 에엿비 너기라 너는 見識이 잇는 사롭이니 이리 느저 히도 덧는다 (老諺 上 44)

(32ㄱ, 33ㄱ)은 과거 시상의 선어말어미 ‘-거-’¹⁶⁾와 결합한 것이다. ‘-거-’는 어간 발음 ‘ㄷ’(y), ‘ㄹ’, 서술격조사의 어간 ‘이-’와 결합할 때 ‘ㄱ’이 탈락하여 ‘-어-’로 바뀌기 때문에 (33ㄱ)에서는 서술격조사의 어간 ‘이-’의 영향으로 ‘-거니’가 ‘-어니’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飜老>에서는 ‘-거니’가 활발하게 쓰이지만 (33ㄴ)에서 보이듯이 근대국어인 <老諺>으로 오면 ‘-거-’가 없는 ‘-니’ 형태로 사용되거나 (32ㄴ)처럼 아예 다른 어미로 바뀌어 버린다.

16) 안병희·이광호(1997)는 ‘-거-’를 과거 시상의 선어말어미로 보지만 고영근(2007)은 확인법의 선어말어미로 본다.

- (34) ㄱ. 바블 먹디 못ㅎ야시니 ㄱ장 비 굽페라 (飜老 上 53)
 ㄴ. 밥을 먹디 못ㅎ여시니 ㄱ장 비 골페라 (老諺 上 48)

- (35) ㄱ. 또 늘그시니 편안티못ㅎ야시니 네 촌 줄 아쳐라 아니커든 (飜老 上 52)
 ㄴ. 또 만코 늘근이 편티 못ㅎ여ㅎ니 네 촌 디룰 아쳐 아니커든 (老諺 上 47)

(34)는 ‘-니’가 존경법의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한 것인데 (35ㄴ)를 통해 드러나듯이 <老諺>에 오면 ‘-시-’와 결합하지 않는 형태도 나타난다.

그런데 <飜老>에서 특이한 형태가 보인다.

- (36) ㄱ. 청ㅎ뇌 안해 와 안즈쇼셔 (飜老 下 3)
 ㄴ. 청하노니 안해 안즈라 (老諺 下 3)
- (37) ㄱ. 청ㅎ뇌 지브 드리 안즈쇼셔 (飜老 下 35)
 ㄴ. 청ㅎ노니 지브 드리 안즈쇼셔 (老諺 下 31)

(36ㄱ, 37ㄱ)의 ‘-뇌’는 중세국어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노이다’의 줄임말로 다음의 예와 같은 것이다.

祥瑞도 하시며 光明도 하시나 𑊗 업스실썩 오늘 문 숲뇌 (月千 上 10)

‘노이다’는 아주 높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36ㄱ, 37ㄱ)의 <飜老>에서 보이는 ‘노이다’의 줄임말인 ‘-뇌’는 ‘-쇼셔’와 호응한다.

‘-니’는 <飜老>와 <老諺>에서 매우 활발하게 쓰인 어미이다. 사용 빈도수는 <飜老>가 303회, <老諺>이 324회¹⁷⁾이다.

(2) -매

현대국어에서 ‘-매’는 원인과 시간의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¹⁸⁾ 안병희 · 이광호

17) 예문 (36)과 (37)에서 다룬 ‘-뇌’는 사용 빈도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8) 최현배(1955),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p.299.

(1997: 251)는 ‘-매’를 명사형어미 ‘口’과 처격조사 ‘애’의 결합으로 추정하였다.

(38) ㄱ. 예서 하덤에 가매 언뎃 길히 잇느뇨 (飜老 上 59)

ㄴ. 예서 夏店 가기 언뎃 길히 잇느뇨 (老諺 上 53)

(39) ㄱ. 앓피는 쏘 아므론 덤도 업슬시 우리 부러 오소니 아므려나 저기 쌀
밭피여 주어든 (飜老 上 40)

ㄴ. 앓피 쏘 아므란 店도 업스매 우리 부러 와시니 아므려나 저기 쌀 밭
피여 주어든 (老諺 上 36)

(40) ㄱ. 세히 혼디 길 녀매 저므니 슈고흐느니라 (飜老 上 34)

ㄴ. 세 사람이 흙피 네매 저므니 슈고흐느니라 (老諺 上 31)

(38, 39)에서 보이듯이 <飜老>와 <老諺>에서 ‘-매’는 대부분 원인을 나타내는 ‘-으므로, -기에’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40)의 경우는 좀 달라서 ‘-면’이라는 조건으로 쓰이고 있어서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 <飜老>와 <老諺>에서 ‘-매’가 조건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40)의 경우뿐이다.

사용 빈도수는 <飜老>가 7회이고 <老諺>이 6회이다.

(3) -닐(-늘)

‘-닐(-늘)’은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성경책과 같은 예스러운 글에서나 볼 수 있는 연결어미로 <飜老>와 <老諺>에서는 ‘-닐’과 ‘-늘’이 혼용되고 있다. 안병희·이광호(1997: 251)는 ‘-닐(-늘)’의 생성을 명사형어미 ‘-니’과 목적격조사 ‘-을/을’의 결합으로 추정하였다.

중세국어에서는 용언 어간에 바로 붙는 일은 없고 반드시 과거 시상의 선어말어미 ‘-거/어’, ‘-나-’, ‘-아/어-’¹⁹⁾에 후행하여 쓰여서 마치 하나의 연결어미와 같은 용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근대국어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19) ‘-나-’, ‘-아/어-’는 ‘-거/어-’의 형태론적으로 제약된 이형태이다. ‘-거/어-’는 자동사 ‘오-’[來] 뒤에서는 ‘-나-’로, 타동사 뒤에서는 어말어미의 종류에 따라서 ‘-아/어-’로 교체된다. 안병희·이광호(1997), 앞의 책, pp.227~228.

- (41) 가. 흔 번 터 골치 내어 죽거 늘 그 도즈기 그 사르미 전대 가져다가
(飜老 上 28)
나. 흔번 터 골치 나 죽거 늘 그 도적이 그 사름의 전대 가져다가 (老諺 上 25)
- (42) 가. 또 조히어 늘 즉제 게서 브리고 (飜老 上 28)
나. 또 조히매 즉제 게서 브리고 (老諺 上 25)
- (43) 가. 의논홀 저기 涿州에 홍정 너러 온 동뫼 오나 늘 서르 보고 이대 이대
(飜老 下 65)
나. 의논홀 쓰이에 涿州에 홍정 허라 갓쓴 벗이 오나 늘 서르 보고 이대 이대
대 (老諺 下 59)
- (44) 가. 또 너 주라 흐야 늘 가져 오니 네 먹고 이 아히를 사발 덩시 주워
가져가게 허라 (飜老 上 45)
나. 또 너를 주라 흐야 늘 가져와시니 네 먹어든 이 아히를 사발 덩시 주어
가져가게 허라 (老諺 上 40)

(41)은 자동사 어간 ‘죽-’[死]에 ‘-거-’와 ‘-늘/늘’이 결합한 것이고 (42가)은 ‘ㅣ’(y)모음의 영향으로 ‘-거-’의 ‘ㄱ’이 탈락하여 ‘-어-’로 바뀌어서 ‘-어늘’로 된 것이다. 그리고 (43)은 자동사 ‘오-’[來] 뒤에서 ‘-거-’가 ‘-나-’로 바뀌어 ‘-나늘’이 되었다. (44)의 ‘흐야늘’은 ‘흐-+-야-(<아<거)+-늘’로 분석된다. ‘흐-’의 경우에는 타동사이고 양성모음으로 끝나므로 ‘-거-’가 ‘-아-’로 바뀌는데, 다시 ‘흐-’는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 ‘흐야’로 바뀌므로²⁰⁾ ‘흐야늘’이 된 것이다.

빈도수는 <飜老>에서 ‘-늘’ 6회, ‘-늘’ 7회이고 <老諺>에서 ‘-늘’ 6회, ‘-늘’ 1회이다.

(4) -르시

‘-르시’에 대한 의미 구분은 학자들마다 다르다. 최현배(1955)는 설명형으로, 허웅(1975)은 제약법²¹⁾으로, 김태곤(1987)은 구속형²²⁾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허웅

20) ‘흐-’는 ‘-아’로 시작하는 어미 ‘-아, -아서, -아도’와 결합할 때 ‘흐야, 흐야서, 흐야도’로 바뀐다.

21) 허웅(1983),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p.626.

22) 김태곤(1987), “연결어미 연구 -옛 시가를 중심으로-”, 「백록어문」, 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pp.60~61.

은 의미적으로 뒷말에 대한 원인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김태곤도 ‘-므로, -기에’의 뜻으로 후행절에 대한 원인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안병희·이광호(1997: 251)는 설명문에서 이유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 (45) ㄱ. 제 漢語를 니르디 몬홀신 이런 전츠로 말 니르디 몬흐느니라 (飜老 上 51)
 ㄴ. 제 漢語를 니르디 못홀신 이런 전츠로 말 니르디 못흐느니라 (老諺 上 46)
- (46) ㄱ. 내 혼 버디 떠디여 올신 내 길조차 날회여 너 기들위 오노라 하니
 (飜老 上 1)
 ㄴ. 내 혼 벗이 이셔 떠더 오매 내 길홀조차 날호여 네여 기드려 오노라 하니
 (老諺 上 1)
- (47) ㄱ. 얹피는 또 아미론 덤도 업슬신 우리 부러 오소니 아미려나 저기 밭를
밧피여 주어든 (飜老 上 40)
 ㄴ. 얹피 또 아미란 店도 업스매 우리 부러 와시니 아미려나 저기 밭 밧피
 여 주어든 (老諺 上 36)
- (48) ㄱ. 흐다가 붓 니피면 살 사르미 민디 아니홀 거실신 사르모로 흐야
 (飜老 下 31)
 ㄴ. 만일 붓 넘피면 살 사름이 밧디 아니홀 써시니 사름으로 히여
 (老諺 下 28)
- (49) ㄱ. 흐마 나그내네 다하 밧신 우리 밧고와 온 바래서 (飜老 上 54)
 ㄴ. 임의 나그내네 그저 하 비니 우리 밧고야 온 밭에서 (老諺 上 48)
- (50) ㄱ. 이러홀신 모든 사르미 노의여 말이디 아니흐니 제 므숨으로 천 간대로
뿌디 (飜老 下 49)
 ㄴ. 이런 전츠로 모든 사름이 다시 말리디 아니흐니 제 므옴으로 천을 간대
로 쁘니 (老諺 下 44)

(45)의 경우는 ‘-르시’가 의미적으로 뒷 문장의 원인에 해당된다. <飜老>인 (46ㄱ, 47ㄱ, 48ㄱ, 49ㄱ, 50ㄱ)에 쓰이던 ‘-르시’가 <老諺>인 (46ㄴ, 47ㄴ, 48ㄴ, 49ㄴ, 50ㄴ)에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매, -니’와 ‘전츠(까닭)’라는 말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르시’를 의미적 기능면에서 원인·이유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르썸’ 형태이던 것이 16세기 이후에는 ‘-르시’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飜老>와 <老諺>에서는 ‘-르시’로 나타난다.

사용 빈도수는 <飜老>가 6회 <老諺>이 1회이다.

2) 조건·가정

(1) -면

‘-면’은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 현대국어와 그 쓰임이 같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는 ‘조건-결과’의 관계로 선행절은 전제가 되는 어떤 명제인 조건이며, 후행절은 전제된 조건 아래서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면’은 후행절이 성립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절을 이끄는 것이다.

- (51) ㄱ. 흐다가 免帖 곳 업스면 일명 세 번 마조를 니브리라 (飜老 上 4)
 ㄴ. 흐다가 免帖 곳 업스면 일명 세 번 마즘을 님느리라 (飜老 上 4)
- (52) ㄱ. 브레 맛바다 드러가면 즉제 물 먹느니라 (飜老 上 35)
 ㄴ. 물에 맛바다 드러가면 즉제 물 먹느니라 (老諺 上 32)
- (53) ㄱ. 그리 전년 ㄱ티 도히 거두면 너희 두셔 사르몬 니르디 말려니와 (飜老 上 54)
 ㄴ. 만일 往年 ㄱ티 도히 거두어시면 너희 두세 사롬은 니르디 말려니와 (老諺 上 49)
- (54) ㄱ. 헝혀 유여히 갈 시저리면 곧 네 집 츠자 가마 (飜老 上 45)
 ㄴ. 헝혀 유여히 갈 시절이면 곧 네 집을 츠자 가마 (老諺 上 40)
- (55) ㄱ. 부뭇 명성을 더러이면 늬미 춤 받고 구지즈리라 (飜老 下 48)
 ㄴ. 父母의 名聲을 더러이면 늬이 춤 밧고 쩀지즈리라 (老諺 下 43)

<飜老>와 <老諺>에서 쓰인 ‘-면’은 (51, 52), (53ㄱ)처럼 대부분 용언의 어간과 직접 결합한다. (53ㄴ)은 존경법의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飜老>와 <老諺>에서는 드문 것이다. (54)는 ‘-면’이 서술격조사의 어간 ‘-이-’와 결합하고 있는데 이것도 몇 번밖에 안 된다. (55)는 동사의 어간 ‘더러이-’에 ‘-면’이 결합한 것인데 피동사 ‘더러이다’는 형용사 ‘더럽다’에서 온 것으로써 ‘더럽-’이 피동 접사 ‘-이-’와 결합하면서 ‘ㅂ’이 탈락한 것이다. (55)처럼 접사가 붙은 경우도 드물다.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중 ‘-면’이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데 사용 빈도수는 <飜老>가 109회이고 <老諺>이 127회이다.

(2) -든

‘-든’은 용언 어간에 바로 붙는 일은 없고 반드시 선어말어미 ‘-거/어-’에 통합되어서 중세국어에서는 마치 하나의 연결어미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 15세기 중세국어에서 보이던 ‘-든’의 형태는 이미 <飜老>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되어서 <飜老>와 <老諺>에서는 ‘-든’의 형태로 나타난다.

- (56) ㄱ. 네 양 사거든 우리 혼 디 가져 (飜老 下 21)
 ㄴ. 네 양을 사거든 우리 혼 디 가져 (老諺 下 19)
- (57) ㄱ. 하늘 붉거든 기들워 날회여 간들 므스기 저프리오 (飜老 上 31)
 ㄴ. 하늘이 붉거든 기드려 날회여 간들 므서시 저프리오 (老諺 上 28)
- (58) ㄱ. 아직 머르든 우리 잠판 혼잔 먹져 마지 아니홀것가 (飜老 下 6)
 ㄴ. 아직 머르든 우리 잠판 혼잔 술 먹어 마지 아니홀췌가 (老諺 下 6)
- (59) ㄱ. 무리 이 버르린 덩 머거든 물 머기라 가져 (飜老 上 33)
 ㄴ. 물이 이 버르린 여물 머거든 물 머기라 가져 (老諺 上 30)

(56, 57)은 선어말어미 ‘-거-’와 연결어미 ‘-든’이 결합하여 ‘-거든’이 된 것이고 (58)은 ‘-거-’가 ‘ㄹ’받침 뒤에서 ‘ㄱ’이 탈락하여 ‘-어-’로 바뀐 것으로 ‘-어든’은 ‘-거든’의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이다. 그리고 (59)는 타동사의 어간 ‘먹-’ 뒤에서 ‘-거든’이 ‘-어든’으로 바뀐 것으로 ‘-어든’은 ‘-거든’의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정한 조건에 따른 교체 현상은 근대국어인 <老諺>으로 오면서 필수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 (60) ㄱ. 돌 울어든 니러 죽제 가져 (飜老 上 25)
 ㄴ. 돌 울거든 니러 죽제 가자 (老諺 上 22)
- (61) ㄱ. 더 벌다가 주고 머구를 머차든 또 그릇들 설어져 오라 (飜老 上 43)
 ㄴ. 더 벗 주어 먹거든 또 그릇들 설어져 오라 (老諺 上 39)
- (62) ㄱ. 또 너 주라 햐야늘 가져 오니 네 먹고 이 아히를 사발 덩시 주워
 (飜老 上 45)
 ㄴ. 또 너를 주라 햐야늘 가져와시니 네 먹어든 이 아히를 사발 덩시 주어
 (老諺 上 41)

<飜老>인 (60ㄱ)에서는 음운론적인 교체 현상이 잘 지켜져서 ‘울어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老諺>인 (60ㄴ)에서는 ‘울어든’이 아니라 ‘울거든’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1ㄴ)은 앞의 (59ㄴ)처럼 ‘머거든’으로 쓰여야 하는데 ‘먹거든’으로 쓰이고 있어서 <老諺>에서는 교체 조건에 상관없이 ‘-거든’ 형태로 간단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62ㄴ)에서 ‘먹어든’으로 쓰인 것은 근대국어 들어 분철(끊어적기)이 확대되면서 어원을 밝혀 적으려는 言衆의 심리를 반영한 현상처럼 보이는데, 분철이 확대되고 교체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서 ‘머거든>먹어든>먹거든’으로 그 형태가 바뀌고 있음을 <飜老>와 <老諺>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63) ㄱ. 다만 두 량만 니르디 말오 네 또 닷 돈만 더 햐야든 네게 포로마
 (飜老 下 23)
 ㄴ. 다만 두 냥만 니르디 말고 네 또 닷 돈만 더 햐야든 네게 풀마 (老諺 下 20)
- (64) ㄱ. 후에 쁘디 못햐거든 내 야자드려 무러 밧고리라 (飜老 下 64)
 ㄴ. 후에 쁘디 못햐거든 내 즘드려 무러 밧고리라 (老諺 下 58)
- (65) ㄱ. 네 엇디 씨드라 숯피디 못햐는다 햐야든 므스물 어리워 가지고셔
 (飜老 下 49)
 ㄴ. 네 엇디 숯피디 못햐는다 햐면 므음을 어리워 가지고셔 (老諺 下 44)
- (66) ㄱ. 햐다가 므릭 來歷이 不明햐거든 일라는 포논 님재 호은자 맛드리니 (飜老 下 17)
 ㄴ. 햐다가 물의 來歷이 不明햐거든 포논 님재 혼자 맛드리라 (老諺 下 15)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거든/거든’이 동사 ‘ㅎ-’와 결합할 때 ‘-야든/야든’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든’은 <飜老>와 <老諺>에서 ‘-든’ 형태를 보이므로 (63)에서는 ‘ㅎ야든’으로 쓰인 것이다. 그런데 (64)의 <飜老>와 <老諺>에서는 형태론적인 교체 조건을 무시하고 ‘ㅎ거든’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飜老>인 (65ㄱ)에서는 ‘ㅎ야든’, <老諺>인 (66ㄴ)에서는 ‘ㅎ거든’으로 나타난다. 즉, <飜老>와 <老諺>에서 ‘ㅎ야든’과 ‘ㅎ거든’이 혼재되는 현상을 보이다가 <老諺> 이후 ‘ㅎ거든’²³⁾으로 굳어지면서 현대국어에 와서 ‘·’의 소실로 ‘하거든’으로 정착된 것이다.

(67) ㄱ. 너 옷 사고져커든 우리 의논호져 (飜老 下 21)

ㄴ. 네 사고져커든 우리 의논호자 (老諺 下 19)

(67)은 ‘사고져 ㅎ(다)’에 ‘-거든’이 결합하면서 ‘사고져 ㅎ거든’이 ‘사고져커든’으로 음운 축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용 빈도수를 보면, <飜老>가 94회이고 <老諺>이 91회이다.

(3) -ㄴ디(-ㄴ디), -건대(-건데)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ㄴ디’, ‘-ㄴ대’는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ㄴ대’가 보편적이고 ‘-ㄴ디’는 드물게 쓰였다.²⁴⁾ 그러나 <飜老>와 <老諺>에서는 ‘-ㄴ디’가 활발하게 쓰이고 ‘-ㄴ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68) ㄱ. 사름 머글 것도 업스디 또 어디 가 물 머글 콩딤 가져 오료 (飜老 上 56)

ㄴ. 사름 머글 셋도 업스디 또 어디 가 딤과 콩을 가져 오리오 (老諺 上 50)

(69) ㄱ. 이 느즌디 일즉 아침밥을 못 머거 잇고 (飜老 上 40)

ㄴ. 이리 느즌디 일즉 아침밥을 못 먹엇고 (老諺 上 36)

(69ㄱ)에서는 ‘-ㄴ디’ 형태가 보이는데 이것은 19세기 문헌에서 많이 쓰이던 형

23) 김태곤은 19세기 문헌인 「가곡원류」를 토대로 연결어미를 연구하였는데 여기에서도 ‘ㅎ거든’으로 나타난다. 김태곤(1987), 앞의 논문, p.59.

24) 허웅(1983), 앞의 책, p.540.

태²⁵)인데도 16세기 문헌인 <飜老>에서 사용되고 있음은 특이한 일이다.

그리고 (70ㄴ, 72ㄴ)에서는 ‘-ㄴ대’에 선어말어미 ‘-거-’가 통합된 ‘-건대’가 쓰이고 있고 (71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인 ‘-건데’도 보인다.

- (70) ㄱ. 헤어든 이맛감 뵈 바비 브스거시 긴홀고 (飜老 上 41)
ㄴ. 헤건대 이만 뵈 밥이 브스거시 긴홀료 (老諺 上 37)

- (71) ㄱ. 네 이리 큰 지비 헤어든 우리 두세 나그내를 쏘 엇디 브리디 못홀리라
니르는다 (飜老 上 47)
ㄴ. 네 이리 큰 집의 헤건대 우리 두세 나그내를 쏘 엇디 브리오디 못홀리라
니르는다 (老諺 上 42)

- (72) ㄱ. 우리 예 흔 가지로 엄정호야 글월 보고 즈세히 묻져주고사 ㄹ 노하 보
내느니 (飜老 上 51)
ㄴ. 우리 예과 비건대 흔 가지로 엄호여 글월 보고 즈세히 盤問호야 ㄹ
노하 보내느니 (老諺 上 46)

특이한 점으로, <飜老>인 (70ㄱ, 71ㄱ)에서는 용언 ‘헤-’가 하향이중모음 ‘ㅣ’(y)로 끝나기 때문에 ‘-거든’이 ‘-어든’으로 바뀌는데 반해서 <老諺>인 (70ㄴ, 71ㄴ)에서는 음운론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언대, -언데’ 형태가 아니라 ‘-건대, -건데’ 형태로 쓰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15세기 중세국어에서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던 어미의 교체 현상이 16세기 중세국어인 <飜老>에서는 지켜지고 있지만 근대국어인 <老諺>으로 오면서 음운론적인 교체 조건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 빈도수를 살펴보면, ‘-ㄴ디’는 <飜老>가 5회, <老諺>이 6회이고 ‘-ㄴ디’는 <飜老>에서 1회이고 ‘-건대(-건데)’는 <老諺>에서 5회이다.

(4) -르던대(-르편대), -르던댄

‘-르던대(-르편대)’, ‘-르던댄’은 현대국어의 ‘-르것 같으면’의 뜻으로 가정을 나

25) 김태곤(1987), 위의 논문, pp.66~67.

김소영(1997), “19세기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p.32~33.

타내는 연결어미이다. 미래의 사실에 대한 조건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게 된다.

- (73) ㄱ. 대되 마손량은 뼈 잇고 옷 니블딘덴 스절 조초 옷 니보디 (飜老 下 50)
ㄴ. 대되 은 마은 냥 은을 뺏더라 오솔 니블썸대 스절을 조차 옷 니브되 (老諺 下 45)

- (74) ㄱ. 우리 세상엿 사르미 남지 디외여 든닐딘덴 내 조상 명성을 혀야 브리디 말오 (飜老 下 48)
ㄴ. 우리 세상 사롭이 男兒ㅣ 되여 든닐썸대 내 조상 명성을 혀여 브리디 말고 (老諺 下 43)

- (75) ㄱ. 휘를 시닐딘덴 봄 스시는 거른 기즈피 휘 시노디 (飜老 下 52)
ㄴ. 휘를 신을딘대 봄에는 거른 기즈피 휘를 신오디 (老諺 下 47)

(73ㄴ, 74ㄴ)에서 ‘-르썸대’로 표기된 것은 ‘-르딘대’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르딘대(-르썸대)’, ‘-르딘덴’은 구개음화되면서 19세기 문헌에서는 ‘르진디(-르진딘)’로 그 형태가 바뀐다.

사용 빈도수를 살펴보면, <飜老>에서 ‘-르딘덴’이 3회이고 <老諺>에서 ‘-르딘대’ 1회, ‘-르썸대’ 2회이다.

(5) -아샤(-어샤), -어샤, -아야(-어야), -아, -에야

이광호(2004: 383~385)는 근대국어론을 설명할 때 ‘-야’를 중세국어의 강제 첨사 ‘샤’에서 기원하였다고 설명하며 그 기본형을 단순히 ‘-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아샤(-어샤)’는 중세국어의 양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어’에 강제 첨사 ‘-샤’가 결합하여 생성된 것으로써 필수조건을 의미한다.

15세기 중세국어에서 ‘-아샤(-어샤)’는 ‘-아/어’와 같은 조건에서 ‘-여샤’, ‘-라샤’ 등으로 변이되었다.²⁶⁾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 ‘-아샤(-어샤)’는 그 형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대체로 ‘샤>아>야’로 변하는 음운 변천의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 ‘-아샤(-어샤)’가 ‘-아야(-어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16세기에는 아직

26) 리의도(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p.22.

도 ‘-아사(-어사)’가 우세하다. 17세기 오면 대체로 ‘-아야(-어야)’로 굳어진다.

- (76) ㄱ. ㄴ장 쟈가사 二丈 기피움 헛거니와 우리 뎛 우므른 다 돌호로 무슨
거시라 (飜老 上 36)
ㄴ. ㄴ장 쟈기야 二丈 김피 잇거니와 우리 더기 우믈은 다 돌로 무슨 거
시라 (老諺 上 32)
- (77) ㄱ. 우리 므슴 음식을 머거사 도홀고 (飜老 上 60)
ㄴ. 우리 므슴 음식을 먹어야 도홀고 (老諺 上 54)
- (78) ㄱ. 네 이리 간대로 갑슬 바도려커든 내 너를 언메나 주위사 올홀고
(飜老 下 22)
ㄴ. 네 이리 간대로 갑슬 바드려히니 내 너를 언머나 갑파야 올홀고
(老諺 下 20)
- (79) ㄱ. 녀름메는 옥으로 썻 그테 갈갈이 하니 썻오디 ㄴ장 사오나와사 치옥
이오 (飜老 下 51)
ㄴ. 녀름메는 옥으로 썻 그테 갈구리 하니를 썻오디 ㄴ장 느즈니아 菜玉
이오 (老諺 下 46)

(76ㄱ, 77ㄱ, 79ㄱ)에서 보이듯이 <飜老>에서는 ‘-아사(-어사)’의 쓰임이 우세한 데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 ‘-아사/어사’가 나타난다. 특이한 것으로 (78ㄱ)에서 ‘-사’ 형태가 쓰였다.

<老諺>에 오면 ‘-아사(-어사)’는 대체로 ‘-아야(-어야)’로 굳어진다. 그러나 (76ㄴ)에서 알 수 있듯이 음운론적인 조건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작-’처럼 용언의 어간이 양성모음으로 끝나면 ‘-아야’가 결합되어야 하는데 ‘-어야’가 연결되어 쓰이고 있다.

(79ㄴ)의 ‘-아’는 ‘느즈-+-ㄴ(관형사형어미)+이-(의존명사)+이-(서술격조사 어간)+-아(필수조건의 연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근대국어에서 ‘-어야’가 ‘-어아’로 쓰인 적²⁷⁾이 있는 것으로 보아 (79ㄴ)의 ‘-아’도 ‘-아야(-어야)’처럼 필수조건을 의미하는 연결어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7) 以上 喪이 업서안 비로소 可히 行홀디니라 (家禮諺解3, 2a)

- (80) ㄱ. 우리 혼 가짓 닥디 못혼 사롬의게 만히 소기느니 네 보람 두어사 대되
 편안흐리라 (飜老 下 65)
 ㄴ. 우리 혼 가지 닥디 못혼 사롬의게 만히 소기느니 네 보람 두에야 대되
 편안흐리라 (老諺 下 58)

(80ㄴ)의 ‘-에야’ 또한 특이한 것으로 이것은 ‘-어야’의 오각으로 보인다.

사용 빈도수를 보면, <飜老>에서 ‘-아사(-어사)’ 13회, ‘-어사’ 1회이고 <老諺>에서 ‘-아야(-어야)’ 8회, ‘-아’ 1회, ‘-에야’ 1회이다.

(6) -고사(-고야)

- (81) ㄱ. 우리 예 혼 가지로 엄정하야 글월 보고 즈세히 묻져주고사 ㄷ 노하 보
 내느니 (飜老 上 51)
 ㄴ. 우리 예과 비컨대 혼 가지로 엄혀 글월 보고 즈세히 盤問하야 ㄷ
 노하 보내느니 (老諺 上 46)
- (82) ㄱ. 방이 뻔죽흔디 묻 뻔죽흔디 보고사 내 혼 마를 니르고져 하노라
 (飜老 上 67)
 ㄴ. 방이 맛당흔가 못 맛당흔가 보고야 내 혼 말을 니르려 하노라
 (老諺 上 61)

(81ㄱ, 82ㄱ)의 ‘-고사’는 나열의 연결어미 ‘-고’에 강세첨사 ‘-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연결어미이다. <飜老>에서는 ‘-고사’의 형태를 보이다가 ‘△’의 소실로 <老諺>인 (81ㄴ, 82ㄴ)에서는 ‘-고야’로 바뀐다. 현대국어에서는 ‘-고서야’라는 뜻으로 ‘-아사(-어사)’처럼 필수조건을 의미한다.

사용 빈도수는 <飜老>에서 ‘-고사’가 2회이고 <老諺>에서 ‘-고야’가 2회이다.

3) 양보

(1) -디(-되)

양보의 종속적 연결어미 ‘-디(-되)’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며 선행절이 후

행절에 대한 양보의 뜻을 갖게 하여 문장을 확대시킨다.

중세국어에서는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오/우-’가 선행되는 ‘-오디/우디’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근대국어에 와서 ‘-되’ 형태가 활발하게 쓰이게 되면서 ‘-디’ 형태의 쓰임이 줄어들었다. 근대국어의 ‘-되’는 현대국어로 이어진다.

‘-디’와 ‘-되’의 이런 변천은 <翻譯老乞大>와 <老諺>을 비교한 다음의 <표 2>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표 2> 연결어미 ‘-디(-되)’

문헌 자료	-(오/우)디		-(오/우)되		-(으)디	-(으)되
	-오디	-우디	-오되	-우되		
翻譯老乞大 (총 56)	46	3	-	-	7	-
老乞大諺解 (총 53)	26	-	12	-	-	15

*각 숫자는 사용 횟수임.

<翻譯老>와 <老諺>에서 ‘-디(-되)’의 빈도수는 비슷하다. 그러나 중세국어인 <翻譯老>에서는 ‘-되’ 형태가 쓰이지 않는다. 또한 16세기 들어서 모음조화의 혼란으로 인해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른 ‘-오/우-’의 교체는 규칙성을 잃고 대부분 ‘-오-’와 결합한 ‘-오디’ 형태가 쓰인다. 그리고 ‘-오/우-’가 없는 ‘-디’ 형태가 쓰이고 있다.

그런데 근대국어인 <老諺>으로 오면 ‘-되’ 형태가 쓰이면서 ‘-디’ 형태와의 쓰임 빈도가 반반이 되었다. 그리고 ‘-오디’의 쓰임이 줄어들고 ‘-오되’가 쓰이고 있으며 선어말어미 ‘-오-’가 없는 형태인 ‘-디’는 쓰이지 않고 ‘-되’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83) ㄱ. 내 그저 닐오디 우리 예 혼 가지로 물 낀는다 ㅎ야 니르노라 (翻譯老 上 37)
 ㄴ. 내 그저 닐오되 우리 여기 혼 가지로 물 낀는가 ㅎ더니라 (老諺 上 33)

- (84) ㄱ. 店主人이 닐오디 이 세 버디 들혼 물 살 나그내오 ㅎ나혼 즘이러라 (翻譯老 下 7)
 ㄴ. 店主人이 닐오되 이 세 벗이 들혼 물 살 나그내오 ㅎ나혼 즘이러라 (老諺 下 7)

- (85) ㄱ. 食後에 머구디 미 혼 복애 설 혼 환식 호야 (飜老 下 40)
 ㄴ. 食後에 먹으되 미 혼 복애 설 혼 환식 호여 (老諺 下 36)

- (86) ㄱ. 또 칩 혼 불 사디 四書론 다 晦庵 주 내시니를 호져 (飜老 下 70)
 ㄴ. 또 칩 혼 불 사되 四書론 다 晦庵 註 낸이를 호자 (老諺 下 63)

‘-디(-되)’는 선어말어미 ‘-오/우-’를 제외하면 (85ㄴ), (86)처럼 대부분 용언의 어간에 직접 결합한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눈길을 끈다.

- (87) ㄱ. 小人이 예 와 널이스오디 성도 묻줍디 아니호얏다니 (飜老 上 44)
 ㄴ. 小人이 예 와 널이오디 성도 일즉 못디 아니호엿더니 (老諺 上 40)

- (88) ㄱ. 네 아리 일즉 서울 너러 오나시니 엿디 모로는다 (飜老 上 60)
 ㄴ. 네 아래 일즉 北京 돈너시되 엿디 아디 못호는다 (老諺 上 54)

(87ㄱ, 88ㄴ)을 보면 높임법의 선어말어미와 결합하고 있다. (87ㄱ)을 분석해보면, ‘널이-[攪]+-술-(겸양법의 선어말어미)+-오-(의도법의 선어말어미)+-디’인데 ‘-술-’의 ‘빙’은 15세기 중엽 이후 음가가 ‘-오/우-’ 또는 ‘Ø’로 변했기 때문에 ‘널이스오디’ 형태가 된 것이다. (88ㄴ)은 존경법의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한 것이다.

(2) -ㄴ들(-ㄴ들)

‘-ㄴ들(-ㄴ들)’은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용언의 어간에 바로 붙기도 하고 선어말어미와 결합하기도 한다. ‘-ㄴ들(-ㄴ들)’은 양보의 태도를 인정하면서 ‘-라고 할지라도 어찌’의 뜻이며 뒤에는 反語의 의미를 가진 反問이 와서 設疑法을 이룬다. 이 연결어미는 고시조에서 상투적으로 많이 쓰였는데, 의존 명사 ‘-ㄴ들’에서 ‘ㄷ’가 의존명사로 쓰이기도 했으며 이때는 뒤에 오는 문장이 반어나 설의법에 구애받지 않는다.²⁸⁾

28) 김태곤(1987), 앞의 논문, pp.63~64.

- (89) ㄱ. 하늘 붉거든 기들위 날회여 간들 뜨스기 저프리오
(飜老 上 31)
ㄴ. 하늘이 붉거든 기드려 날회여 간들 뜨서시 저프리오
(老諺 上 28)

- (90) ㄱ. 네 비록 遼東人이로라 흔들 내 밋디 못흐애라 (飜老 上 50)
ㄴ. 네 비록 遼東사름이로라 흐나 내 밋디 못흐여라 (老諺 上 45)

<飜老>와 <老諺>에서는 그 쓰임이 드물어서 빈도수가 <飜老> 2회, <老諺> 1회이다.

(3) -니와

‘-니와’는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측을 뒤집는 뜻을 함축한다. 반드시 선어말어미 ‘-거/어-’, ‘-나-’, ‘-아/어-’²⁹⁾와 결합하여서 하나의 형태처럼 쓰였다.

<飜老>와 <老諺>에서는 ‘-거니와’, ‘-어니와’ 형태와 미래 시상의 선어말어미 ‘-리-’와 결합한 ‘-려니와’ 형태가 보인다.

- (91) ㄱ. 사름 머글 거슨 안직 저그나 잇거니와 이 몰들흔 쏘 엇디 흐려뇨
(飜老 上 55)
ㄴ. 사름이 머글 썬슨 아직 저기 잇거니와 이 몰들홀 쏘 엇디 흐려뇨
(老諺 上 50)
- (92) ㄱ. 큰형님 남경치는 프리 도쿄 쏘 빗나고 ㄱ늘어니와 다문 오래 넘디 못
홀 거시오 (飜老 下 25)
ㄴ. 큰형아 南京치는 빗치 도쿄 쏘 빗나고 ㄱ늘거니와 다만 오래 넘디 못
홀 썬시오 (老諺 下 23)

(92ㄱ)은 어간말음이 ‘ㄱ’이어서 ‘-거-’의 ‘ㄱ’이 탈락하여 ‘-어-’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92ㄴ)인 <老諺>에 오면서 음운론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거니와’를 쓰고 있다.

29) ‘-나-’, ‘-아/어-’는 과거 시상의 선어말어미 ‘-거/어-’의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이다.

(93) ㄱ. 이러하면 갑스란 너 조초려니와 은으란 내 말 드러 하면 흥정 못고
(飜老 下 60)

ㄴ. 이러면 갑스란 너를 조츠려니와 은으란 내 말대로 하면 흥정을 못고
(老諺 下 54)

(93ㄱ)은 ‘좃-[從]+-오-(의도법의 선어말어미)+-리-(미래 시상의 선어말어미)+-어(<거>)-+-니와’이다. 그런데 여기서 ‘-거-’를 과거 시상의 선어말어미로 본다면 미래 시상의 선어말어미와 동시에 나타난다는 모순이 생긴다. 또한 보통 과거 시상의 선어말어미는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오/우-’에 선행하게 되는데 이 점도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니와’와 결합하는 경우의 ‘-거-’는 형태는 과거 시상의 선어말어미와 같지만 의미적으로는 확인법³⁰⁾이라고 보아야 이런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93ㄴ)은 선어말어미 ‘-오/우-’가 근대국어에서 사라짐에 따라 ‘조츠려니와’로 나타난 것이다.

사용 빈도수는 <飜老>가 21회, <老諺>이 21회이다.

(4) -아도/어도(-라도)

‘-아도’는 양태의 연결어미 ‘-아/어’에 조사 ‘-도’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양태의 ‘-아’와는 매우 다른 뜻을 얻게 되었다. 그 쓰임도 매우 폭넓으므로 ‘-아도/어도’가 하나의 형태로 굳어져서 결과가 예상과 반대되는 양보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서술격조사의 어간 ‘이-’나 형용사 어간 ‘아니-’와 결합할 때는 ‘-라도’가 된다.

(94) ㄱ. 오느리 밧브니 러실 다시 서르 보와 수울 머거도 닛디 아니커니썸나
(飜老 下 6)

ㄴ. 오늘은 밧브니 너일 다시 서르 보와 술 떡어도 닛디 아니커니썸너
(老諺 下 6)

30) 고영근도 ‘-거-’를 의미적으로 확인법의 선어말어미라 하여 시상의 선어말어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고영근(2007), 앞의 책, pp.146~147.

- (95) ㄱ. 山東싸호로 풀라 가져 가리니 저제 가도 쏘 혼 가지니 즈믄 뽀거시 혼
무들기만 (翻老 下 8)
ㄴ. 山東싸히 풀라 가져 가려 혼느니 곳 저제 가도 쏘 혼 가지라 일천 거시
혼 무들기만 (老諺 下 7)
- (96) ㄱ. 내 흥정바치 아니라도 이 비닷 갑슬 내 다 아노라 (翻老 下 27)
ㄴ. 내 흥정바치 아니라도 이 비단 갑슬 내 다 아노라 (老諺 下 24)
- (97) ㄱ. 비록 오 분 만흔 병이라도 닷 분만 병이라도 더어 열 분이 도의여 가
느니라 (翻老 下 47)
ㄴ. 비록 五 分 만흔 병이라도 더 十 分이 되느니라 (老諺 下 43)

(94, 95)는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 ‘-아도/어도’가 나타난 것이고 (96, 97)은 용언 어간 ‘아니-’와 서술격조사 어간 ‘이-’라는 조건에 따라 ‘-라도’로 바뀐 것이다.

- (98) ㄱ. 아니 혼는 사름 주워 쁘게 햐도 잡말 못 혼리니 햐다가 후에 미들 고
디 업슬가 햐야 (翻老 下 17)
ㄴ. 아니 혼는 사름 주어 쁘게 햐도 잡말 못 혼리라 후에 의빙홀 디 업슬
가 저허 (老諺 下 15)
- (99) ㄱ. 쁘디 못 햐도 무던타 (翻老 上 65)
ㄴ. 쁘디 못 햐도 무던햐다 (老諺 上 59)

그리고 중세국어에서는 동사 어간 ‘-하’와 ‘-아도’가 결합할 때 ‘-햐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翻老>에서는 (98ㄱ, 99ㄱ)처럼 ‘-햐도’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老諺>에 와서는 (98ㄴ)처럼 ‘-햐도’로 쓰이거나 (99ㄴ)처럼 ‘-햐도’로 쓰이고 있어 ‘-야도’와 ‘-여도’가 혼재되고 있다.

사용 빈도수를 보면, ‘-아도/어도’는 <翻老> 20회, <老諺> 15회이고 ‘-라도’는 <翻老> 7회, <老諺> 3회이다.

4) 목적

-라(-러)

목적의 뜻을 갖는 ‘-라’는 용언의 어간에 바로 붙기도 하고 선어말어미와 결합

하기도 한다. 기원적으로 명사형어미 ‘-르’에 처격조사의 고대형인 ‘-아’가 결합³¹⁾하여 생겨난 것이다. 받침이 있는 용언 어간과 결합할 때는 대부분 매개모음 ‘-으-’가 삽입되는데 다만 받침이 ‘ㄹ’인 경우는 ‘-으-’가 삽입되지 않는다. ‘-라’ 뒤에는 거의 동사 ‘가다’, ‘오다’가 뒤따른다.

(100) ㄱ. 도마 우회 도퇴 고기 사라 가라 (飜老 上 20)

ㄴ. 도마엿 猪肉을 사라 가라 (老諺 上 18)

(101) ㄱ. 내 아니 여러 물 가져 풀라 가노라 (飜老 上 8)

ㄴ. 내 이 여러 물 가져 풀라 가노라 (老諺 上 7)

(102) ㄱ. 그저 이 길 북녁 人家의 드러가 잘 더 어드라 가져 (飜老 上 46)

ㄴ. 그저 이 길 북녁 더 人家의 드러가 잘 더 어드라 가져 (老諺 上 42)

(103) ㄱ. 흐나 두워 방 보라 흐고 다르니 물 잇그리 가라 흐저 (飜老 上 33)

ㄴ. 흐나 머무러 房 보라 흐고 다르니란 물 잇그리 가져 (老諺 上 30)

(100, 101)은 모음이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 결합된 것이고 (102)는 받침이 있는 어간과 결합하면서 매개모음 ‘-으-’가 삽입되었다.

(103)의 ‘-러’는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태이다. 사용 빈도수가 <飜老>에서는 1회이고 <老諺>에서도 조금 늘어 4회로 나타난다. 근대국어에서도 대체로 중세국어처럼 ‘-라’로 실현되었으나 ‘-러’로 실현되는 경향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러’가 현대국어로 그대로 이어진다.

사용 빈도수는 ‘-라’의 경우에는 <飜老> 55회, <老諺> 56회이고 ‘-러’는 <飜老> 1회, <老諺> 4회이다.

5) 의향·의도

-러

‘-러’는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의향이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함을 나타내는 연결

31) 안병희·이광호(1997), 앞의 책, pp.253~254.

어미이다.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가 모두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항상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오/우-’를 앞세우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근대국어에 와서 의도법이 소멸됨에 따라 그 특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104) ㄱ. 므스므려 빳를 밧고려 흐느노 (飜老 上 40)

ㄴ. 므습아라 빳 밧고려 흐느노 (老諺 上 36)

(105) ㄱ. 네 닐음곳 올흐면 두셔 마래도 홍정을 즉재 므출거시니 네 이리 간대
로 갑슬 바드려 말라 (飜老 下 10)

ㄴ. 네 닐음이 올흐면 두세 말애도 홍정이 즉재 일 꺼시니 네 이리 간대
로 갑슬 바드려 말라 (老諺 下 9)

(106) ㄱ. 하마 너희 츄즈라 가려 흐다니 네 또 오나다 (飜老 上 68)

ㄴ. 흐마 너희 츄즈라 가려 흐터니 네 또 오나다 (老諺 上 62)

16세기 중세국어인 <飜老>를 살펴보면, 선어말어미 ‘-오/우-’와 결합한 ‘-오려’와 ‘-우려’ 중에서 ‘-오려’만 보인다. ‘-오-’와의 결합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105ㄱ)에서는 쓰였지만 (106ㄱ)에서는 쓰이지 않았다.³²⁾ 사용 빈도수를 보면, 총 13회 중에서 ‘-오려’가 7회, ‘-려’가 6회이다. 특이한 점은 ‘-오려’로 쓰인 경우에는 대부분 (105ㄱ)처럼 동사 ‘받다’와 결합한 형태인 ‘바도려’라는 것이다.

<老諺>에 오면 ‘-오/우-’와 결합하지 않은 ‘-려’의 쓰임이 더욱 활발해져서 대부분 ‘-려’ 형태로 쓰이는데 빈도수는 15회이다. ‘-려’는 19세기 문헌자료에서 ‘-오/우-’를 수반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다³³⁾는 점으로 미루어 17세기 말인 <老諺>에서부터 ‘-오려’ 형태가 거의 사라지고 ‘-려’로 쓰이게 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6) 희망·회구

(1) -고져(-오져, -고자, -져, -자)

‘-고져’는 希望이나 希求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자신의 행동이나 동작을 통

32) (104)는 기본형이 ‘밧고다’이기 때문에 ‘-오-’의 쓰임이 모호하다. 여기에서는 ‘밧고-+-려’로 분석하여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오-’가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

33) 김소영(1997), 앞의 논문, pp.55~56.

해서 어떤 내용을 회구하고자 할 경우에 쓰이는데 용언 어간에 바로 연결된다. 15세기에는 ‘원하다, 사랑하다, 버라다, 너기다’ 등의 말이 이어나고, 또 ‘하다’도 이어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16세기에는 주로 ‘하다’가 연결되어 쓰였는데 <飜老>와 <老諺>에서는 거의 동사 ‘하다’가 뒤따른다. 현대국어에서는 ‘-고자’로 쓰인다.

한편, <飜老>에서의 ‘-오져’는 <老諺>으로 가면서 ‘-고져’로 변하는데 그 변화 시기는 대략 16세기 중반으로 본다.³⁴⁾

- (107) ㄱ. 모도와 언메나 갑슬 받고져 하는다 (飜老 下 10)
 ㄴ. 모도와 언머 갑슬 받고져 하는다 (老諺 下 9)

- (108) ㄱ. 모시뵈도 이피셔 풀오져 하야 가노라 (飜老 上 8)
 ㄴ. 모시뵈도 이피셔 풀고져 하야 가노라 (老諺 上 7)

<飜老>인 (108ㄱ)을 보면 용언의 어간이 ‘ㄹ’받침으로 끝났기 때문에 ‘-고져’가 ‘-오져’로 바뀌었다. 그러나 <老諺>인 (108ㄴ)에서는 음운론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고져’로 쓰임을 알 수 있다.

- (109) ㄱ. 이러하면 내 요스시 도로 가고자 하니 며춧 나리 도흔고 (飜老 下 71)
 ㄴ. 이러면 내 요스이 도로 가고져 하니 몇춘 날이 도흔고 (老諺 下 64)

- (110) ㄱ. 문져 므르저 하느니란 은 닷랑 벌하져 하얏느니 (飜老 下 19)
 ㄴ. 문져 믄르자 하느니란 은 닷랑 벌하자 하얏노니 (老諺 下 17)

그런데 (109ㄱ)에서는 ‘-고자’가 쓰이는데 이것은 16세기 들어서 음운 변천에 따라 생겨난 ‘-고져’의 변이형태로 16세기의 다른 문헌³⁵⁾에서도 그 쓰임을 볼 수 있다. (110ㄱ)에서는 ‘-저’ (110ㄴ)에서는 ‘-자’가 쓰이는데 그 쓰임이 드물다.

사용 빈도수를 보면, <飜老>에서는 ‘-고져’ 18회, ‘-오져’ 5회, ‘-고자’ 1회, ‘-저’ 2회이고 <老諺>에서는 ‘-고져’ 21회, ‘-자’ 2회이다.

34) 허웅(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p.231.

35) 부모의 은눌 갑고자 하면 이 경을 다시 일우라 (佛說 大報父母恩重經 구: 24ㄴ)

(2) -아저

(111) ㄱ. 내 이피셔 음양하야 가고저 하노라 (飜老 下 70)

ㄴ. 내 임의셔 음양하여 가고저 하노라 (老諺 下 63)

(112) ㄱ. 네 하마 풀오저 하거니 또 긋 네 가저 저제 가디 말오 그저 이 덤에
두라 (飜老 上 69)

ㄴ. 네 하마 풀고저 하거든 또 모로미 네 가저 저제 가디 말고 그저 이 덤
에 두라 (老諺 上 62)

동사의 어간 ‘가-’[去]에 희망이나 회구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사용될 때는 (111)처럼 ‘-고저’가 쓰이는 게 일반적이거나 (112)처럼 ‘-아저’가 결합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飜老>와 <老諺>에서 각각 1회 나타난다.

7) 한도

-도록

‘-도록’은 어떠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음 일을 계속함을 나타낸다. 즉, 두 문장이 연결어미로 접속될 때 후행절이 어떤 사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 도달하게 되는 한도를 선행절이 나타내게 되는데, ‘-도록’이 선행절의 서술어 어간에 통합하여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15세기에 한도를 나타내는 어미의 대표형태는 ‘-드록’이고 ‘-도록’도 간혹 나타났는데 <飜老>와 <老諺>에서는 ‘-도록’ 형태가 쓰이고 있다.

(113) ㄱ. 새도록 이시면 아니 머겨도 비 브르리니 구퓍여 콩딛고디 말거시어
니쓰나 (飜老 上 56)

ㄴ. 새도록 이시면 아니 머겨도 비 브르리니 구퓍여 콩딛고디 말라
(老諺 上 50)

(114) ㄱ. 제 겨집과 아히 이받느니 훈나래 나죄 도의도록 나올 저기 (飜老 下 55)

ㄴ. 제 겨집과 즈식을 치니 훈날에 나조히 다드라 나오매 (老諺 下 49)

- (115) ㄱ. 내 새배 저기 밥 머근 후에 이 늦도록 다드라도 바블 먹디 못혀야시니
(飜老 上 53)
ㄴ. 내 새배 저기 밥 먹고 이 느즈매 다르라 밥을 먹디 못혀야시니 (老諺 上 48)

(113), (114ㄱ, 115ㄱ)은 ‘-하기까지’라는 뜻으로 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들은 이러한 뜻을 갖지 않는다.

- (116) ㄱ. 히 쏘 이리도록 늦도다 더 브라는 어득흔 수프리 곧 하덤이라 (飜老 上 60)
ㄴ. 히 쏘 이리 느젓논디 더 브라는 黑林이 곳 夏店이라 (老諺 上 54)

- (117) ㄱ. 진실로 더리도록 만히 도흔 은이 업세라 (飜老 下 63)
ㄴ. 진실로 더대도록 만히 도흔 은이 업세라 (老諺 下 57)

- (118) ㄱ. 이리도록 만흔 흥정에 므스므려 싯구나뇨 (飜老 下 64)
ㄴ. 이대도록 만흔 흥정에 므슴아라 싯구뇨 (老諺 下 57)

(116ㄱ), (117, 118)에서 쓰인 ‘-도록’은 ‘-게’라는 의미로 쓰였다. 즉, 이미 부사처럼 굳어져서 쓰이는 경우로 연결어미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용 빈도수를 보면 <飜老>가 6회, <老諺>이 3회이다.

8) 연속

-락

‘-락’은 두 동작이 잇따라서 행하여짐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대부분 ‘-락~ -락’처럼 ‘-락’이 두 번 반복해서 쓰인다. 이 어미는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에도 그대로 사용되며 현대국어의 ‘-르 듯하다’로 해석된다.

- (119) ㄱ. 의원이 널오더 네 땃이 부혀락 팀혀락 흐느다 네 령므레 상흔 듯하다
(飜老 下 40)
ㄴ. 의원이 널오더 네 脈이 浮혀락 沈혀락 흐니 네 冷物에 상흔 듯하다
(老諺 下 36)

- (120) ㄱ. 올희 ㄱ물랏 ㄹ 씨이랏 ㅎ야 거두디 못흔 전츠로 (飜老 上 54)
 ㄴ. 올희 ㄱ물고 ㄹ 씨여 거두디 못흔 전츠로 (老諺 上 48)

‘-랏’은 후행하는 동사와 통합하여 동사구를 구성한다. (119)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하는 동사 어간에 연결되고 그 뒤에 동사가 올 경우 다른 성분이 그 사이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20ㄱ)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용 빈도수는 <飜老>가 4회, <老諺>이 2회이다.

9) 양태

-아/어

‘-아/어’는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에서 공통적으로 主動詞의 동작보다 앞선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연결어미로 <飜老>와 <老諺>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연결어미이다. 중세국어에서는 보조사 ‘ㄱ, ㄴ’ 등이 통합되는 예가 있었지만 근대국어에서는 소멸하였다. <飜老>와 <老諺>에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들다.

- (121) ㄱ. ㅎ 사술통에 다만 덕일 선비 ㅎ야 사술통 가져다가 혼드러 그 둥에 ㅎ
 나 빠혀 (飜老 上 4)
 ㄴ. ㅎ 사술통에 담아 덕일 선비 ㅎ여 사술통 가져다가 혼드러 그 둥에 ㅎ
 나흘 빠혀 (老諺 上 3, 4)
- (122) ㄱ. ㅎ 더 쓰면 엇디 움겨 푼라 늬 주리오 (飜老 下 15)
 ㄴ. ㅎ 더 쓰면 엇디 움겨 푼라 늬을 주리오 (老諺 下 13)

‘-아/어’는 대체로 용언 어간과 직접 통합하는데 (121, 122)처럼 대부분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 ‘-아/어’로 교체된다.

(121ㄱ)에서 ‘다마’로 쓰인 것이 (122ㄴ)에서 ‘담아’로 쓰인 것은 16세기 이후 끊어적기(분철)가 확대되던 경향이 <老諺>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123) ㄱ. 내 가 벗겨 보내여 너 주마 (翻老 下 18)
 ㄴ. 내 가 벗겨 보내여 너 늘 주마 (老諺 下 17)
- (124) ㄱ. 도훈 은 굴히여 가져오라 (翻老 下 28)
 ㄴ. 도훈 은 굴히여 가져오라 (老諺 下 25)
- (125) ㄱ. 모딘 ㅁ슴 내여 즉제 게셔 흔 무적 큰 돌 가져다가 (翻老 上 28)
 ㄴ. 사오나온 ㅁ음 내여 즉제 게셔 흔 덩이 큰 돌흘 가져다가 (老諺 上 25)
- (126) ㄱ. 내 의의셔 흔나 산 드되여 예셔 화를 지후리라 (翻老 下 32)
 ㄴ. 내 흔번의 흔 오리 산 임의셔 예셔 이 활을 짓자 (老諺 下 29)

그리고 ‘-아/어’는 (122, 123)처럼 용언 어간이 단모음 ‘ㅣ’로 끝날 때는 용언의 어간에 음운이 축약되어 ‘옴겨’, ‘벗겨’처럼 바뀐다. 그러나 (124, 125)처럼 용언 어간이 하향이중모음 ‘ㅣ’일 때는 ‘여’로 바뀐다. (126)처럼 용언 어간이 ‘-아/어’로 끝나면 그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어’는 중세국어에서 선어말어미 ‘-시-’, ‘-습-’과 통합하기도 했는데 <翻老>와 <老諺>에서는 (127)의 ‘-시-’와 결합하는 경우 말고는 찾기가 힘들다.

- (127) ㄱ. 하늘히 어엿비 너기샤 모미 편안흐면 가리라 (翻老 上 2)
 ㄴ. 하늘이 어엿비 너기샤 몸이 편안흐면 가리라 (老諺 上 2)
- (128) ㄱ. 그 도즈기 구윗옥에 이셔 가텃느니라 (翻老 上 30)
 ㄴ. 그 도적이 官司옥에 번드시 이셔 가텃느니라 (老諺 上 27)

(127)은 ‘-아/어’가 존경법의 선어말어미 ‘-시-’ 다음에 올 때 ‘-시-’가 ‘-샤-’로 바뀌고 ‘-아/어’는 생략된 것이다. 그러나 (128)은 ‘이시-[有]+-어’로써 용언의 어간 끝말인 ‘시-’와 ‘-어’가 축약되어서 ‘-셔’의 형태를 띠게 된 것으로 ‘-샤’와 형태면에서 구별이 된다.

- (129) ㄱ. 나도 北京 향흐야 가노라 (翻老 上 7)
 ㄴ. 나도 北京 향흐야 가노라 (老諺 上 7)

- (130) ㄱ. 우리 스승이 성이 온화햏 ㅓ장 즐겨 ㅓ르치는다 (飜老 上 6)
 ㄴ. 우리 스승이 성이 온화햐 ㅓ장 즐겨 ㅓ르치는다 (老諺 上 6)

(129), (130ㄱ)은 동사 ‘햏-’가 ‘-아/어’와 결합할 때 ‘햏야’로 바뀐 것이다. 16세기 이후 모음조화가 혼란스러워지면서 ‘햏여’가 나타나는데 (130ㄴ)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飜老>에서는 ‘햏야’로 쓰였고 <老諺>에 와서는 ‘햏야’, ‘햏여’가 혼재하지만 ‘햏여’가 훨씬 우세한 점으로 미루어 근대국어는 ‘햏야’가 ‘햏여’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다. ‘햏여’는 18세기 초에 첫음절에서 ‘·’의 음가가 상실하면서 표기는 ‘햏여’지만 [햏여]로 발음되다가 1933년 이후 ‘·’의 표기도 사라지면서 현대국어의 ‘햏여’로 음가와 표기가 일치되어 완전히 정착된 것이다.

사용 빈도수는 <飜老>가 444회인데 이 중에서 ‘햏야’는 64회이다. <老諺>은 445회인데 이 중에서 ‘햏야’가 25회, ‘햏여’가 51회이다.

그런데 다음에서 쓰이는 ‘햏야, 햏여’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 (131) ㄱ. 네 아버지 너를 햏야 비호라 햏시느녀 (飜老 上 6)
 ㄴ. 네 아버지 널로 햏여 비호라 햏느냐 (老諺 上 6)
- (132) ㄱ. 올햏니 우리 아버지 나를 햏야 비호라 햏시느다 (飜老 上 6)
 ㄴ. 올햏니 우리 아버지 날로 햏여 비호라 햏느니라 (飜老 上 6)
- (133) ㄱ. 다르니 햏야 비라 가리오 (飜老 上 65)
 ㄴ. 다른 사람 햏여 비라 가리오 (老諺 上 58)

(131, 132, 133)에서 쓰인 ‘햏야, 햏여’의 ‘-아/어’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햏야, 햏여’는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부사이며 ‘햏여금, 시키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햏야, 햏여’ 앞에는 주로 ‘내, 네, 선비, 뉘, 아버지(아버이), 나그내, 아히, 벌’ 등의 사람과 관련된 어휘가 오는 것도 ‘햏야, 햏여’가 갖는 의미적 특성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31, 132, 133)처럼 ‘햏야, 햏여’가 부사로 쓰인 경우는 연결어미에 포함시키지 않아 사용 빈도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0) 수단·방법

-아서/어서

‘-아서/어서’는 선행하는 동사 어간에 통합하여 후행 동사의 결과에 대하여 ‘수단·방법’의 의미를 갖는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 쓰인 ‘-아서/어서’는 현대국어의 ‘-아서/어서’와 의미 기능이 동일하다.

이광호(2004: 385~396)는 ‘-아서/어서’의 생성을 양태의 연결어미 ‘-아/어’에 보조사 ‘-서’가 통합된 것으로 보고 ‘수단·방법’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아서/어서’도 넓은 뜻으로는 현대국어처럼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이광호의 의견을 좇아 ‘수단·방법’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따로 설정한다.

- (134) ㄱ. 나그네들 흐야 그저 이 가개 아래 안자셔 밥 먹게 흐저 (飜老 上 40)
ㄴ. 나그네들 흐여 그저 이 가개 아래 안자셔 밥 먹게 흐자 (老諺 上 36)
- (135) ㄱ. ㄱ새 셔셔 놀며 보는 사لامي 닐오디 이 즈름의 니르논 감시 정히 고돈
마리로다 (飜老 下 13)
ㄴ. ㄱ새 셔셔 힘힘히 보는 사롬이 닐오되 이 즈름의 닐으논 감시 정히 고
돈 말이로다 (老諺 下 12)
- (136) ㄱ. 우리 이러트시 두셔들 동모 지셔셔 늦 불기디 아니흐고 이제 여히여
가노니 (飜老 下 73)
ㄴ. 우리 이러트시 두어들 벗 지어셔 늦 불키디 아니흐엿더니 이제 스별흐
거니와 (老諺 下 65)

(134, 135, 136)을 보면 ‘수단·방법’이라는 의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 빈도수는 <飜老>가 21회, <老諺>이 19회이다.

11) 중단

-다가

‘-다가’³⁶⁾는 계속되던 동작이나 상태가 그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가 이어질

때 쓰이는 연결어미이다. 이 어미는 중세국어, 근대국어 그리고 현대국어에까지 그 형태가 이어지고 그 기능도 변함이 없다.

(137) ㄱ. 관원 얹피 든니다가 저웃 북과 분곳 이시면 관원도 도의리라
(飜老 下 42)

ㄴ. 관원 얹피 든니다가 제 북분이 이시면 관원도 되느니라 (老諺 下 38)

(138) ㄱ. 지즙과 돛 가져다가 나그내네 주워 실에 흐라 (飜老 上 25)

ㄴ. 답지즙과 샷글 가져다가 나그내들 주어 실게 흐라 (老諺 上 23)

(137, 138)을 보면, 선행절에서 서술어의 동작이 중단되고 후행절에서 행위가 이어질 때 선행절의 서술어 용언에 ‘-다가’가 통합됨을 알 수 있다.

‘-다가’는 선어말어미 ‘-시-’, ‘-습-’, ‘-리-’, ‘-앗-’과 결합할 수 있는데 <飜老>와 <老諺>에서는 ‘-앗-’과 결합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완료를 나타내는 어미 ‘-아/어’와 ‘있음’을 뜻하는 용언 어간 ‘이시-, 잇-’[有]이 축약된 ‘-엿/엇-’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동작의 완료 상태를 나타낸다.³⁷⁾ ‘-엿/엇-’에서 모음 ‘ㅣ’가 탈락한 것이 ‘-앗/엇-’으로 중세국어에서도 ‘-앗/엇-’은 그 쓰임이 활발했다. 이 형태소는 근대국어에서 이미 단순한 과거만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굳어지게 된다.

(139) ㄱ. 잠깐 더디나 짐 브리왔다가 두셔잔 술 먹고 문득 디나가져
(飜老 上 62)

ㄴ. 잠깐 덧이나 짐 브리왔다가 두어잔 술 먹고 문득 디나가자
(老諺 上 56)

(140) ㄱ. 그 나그내 뵈여 어즐흐앗다가 씨야 나니 (飜老 上 29)

ㄴ. 그 客人이 뵈여 어즐흐엇다가 되 씨야 나니 (老諺 上 26)

36) 최현배는 ‘-다가’를 ‘그침꼐(중단형)’로 보고 허응은 ‘-다가’를 ‘전환형’으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의미적 기능으로 볼 때 중단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져 ‘중단’이라고 설정하였다. 참고로 현대 문법에서 남기심·고영근(2005)은 ‘-다가’를 다른 일로 바뀔 즉, ‘전환’으로 보았다.

37) 안병희·이광호(1997), 앞의 책, p.232.

- (141) ㄱ. 흙피 다 내오 수 더거 뚫다가 北京의 가면 흙피 헤여 덜 거시라
(翻老 上 24)
- ㄴ. 흙피 다 내고 數目 더것다가 北京의 가든 흙피 헤여 더자
(老諺 上 21)

(139, 140), (141ㄴ)을 보면, 용언 어간에 ‘-앗/엇-+-다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141ㄱ)에서 보이는 ‘뚫다가’는 동사 ‘두-’가 ‘-앗/엇’과 결합하면서 ‘뚫’으로 바뀌고³⁸⁾ 여기에 ‘-다가’가 결합한 것이다.

- (142) ㄱ. 이러트시 서르 간슈하면 곧 열 분만한 병이라도 닷 분이나 덜리라
(翻老 下 47)
- ㄴ. 이러트시 서르 보슬피면 곳 열 分만한 병이 잇다가도 五 分이나 덜리라
(老諺 下 43)
- (143) ㄱ. 혼 사술통에 다마 덕실 선비 햐 사술통 가져다가 혼드러 그 둥에 햐
나 삐혀 (翻老 上 4)
- ㄴ. 혼 사술통에 담야 덕일 선비 햐여 사술통 가져다가 혼드러 그 둥에 햐
나³⁹⁾ 삐혀 (老諺 上 4)

중세국어에서는 ‘-다가’에 보조사 ‘-도’가 결합할 수 있었는데 이 형태가 <老諺>인 (142ㄴ)에서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다가’가 경우에 따라 동사구를 이루는 구실도 했는데 (143)에서 이러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144, 145)에서는 동사 어간 ‘햐-’에 ‘-다가’가 결합한 형태인 ‘햐다가’를 의미적 기능면에서 ‘중단’이라고 볼 수 없다.

- (144) ㄱ. 외오니란 스승님이 免帖 햐나홀 주시고 햐다가 외오디 못햐야든 덕실
선비 햐야 어피고 세 번 티느니라 (翻老 上 3)
- ㄴ. 외오니란 스승이 免帖 햐나홀 주고 햐다가 외오디 못햐야든 덕일 선비
햐야 어피고 세홀 티느리라 (老諺 上 3)

38) 중세국어에서는 ‘-앗/엇-’이 동사 ‘두-’ 아래에서 ‘긋-’으로 바뀌어 ‘뚫-’으로 쓰이는데, 동시에 ‘ㅣ’가 떨어진 ‘뚫’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고영근(2007), 앞의 책, p.139.

- (145) ㄱ. 흐다가 디나가면 더 녀긔 시십 릿 싸해 人家 | 업스니라 (翻老 上 10)
 ㄴ. 흐다가 디나가면 더 편 二十里 싸히 人家 | 업스니라 (老諺 上 9)

위의 (144, 145)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흐다가’는 ‘하다가, 만일’이라는 가정의 뜻을 가진 부사일 뿐이다. (144)의 ‘흐다가’는 ‘물흐야든(못흐여든)’의 ‘-든’(가정의 연결어미), (145)의 ‘흐다가’는 ‘디나가면’의 ‘-면’(가정의 연결어미)과 호응하고 있으니 중세국어에서부터 이미 가정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老諺> 이후에 나온 18세기 문헌인 「蒙語老乞大」나 「清語老乞大」에서도 ‘흐다가’에 해당하는 구절을 ‘萬一, 만일, 흥혀’라고 해석하고 있어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사인 ‘흐다가’에 쓰인 ‘-다가’는 연결어미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사용 빈도수에서 제외시킨다.

연결어미 ‘-다가’의 사용 빈도수는 <翻老> 27회, <老諺> 26회이다.

12) 긍정 대상

-디위

‘-디위’는 긍정의 대상을 강조하고 그 반대의 사태를 부정하는 어미로 선행절은 긍정(강조), 후행절은 부정을 나타낸다. 15세기 중엽에 ‘-디비’가 있었다가 ‘빙’의 소실로 ‘-디위, -디외, -디웨’ 등으로 변화했는데 근대국어에서는 ‘-디웨’ 하나로 단일화되었다. 현대국어에서 접속을 나타내는 ‘-지’가 여기에서 온 것이다.

‘-디위’의 특징은 후행절이 항상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실현되므로 (146ㄱ)에서도 후행절로 부정문이 이어지는 것이다. ‘-디위’는 그 쓰임 양상이 <翻老>에서 1회가 보인다.

- (146) ㄱ. 또 아니 먼당흐야셔 잇는 수를 볼 거시디위 문의 나면 프르기를 알라
 몰홀 거시라 (翻老 下 64)
 ㄴ. 또 늦출 당흐야셔 잇는 수을 보디 아니하엿느냐 문에 나면 프르기를 알라
 못홀 써시라 (老諺 下 58)

3.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는 어미 그 자체로는 일정한 의미 없이 보조용언을 본용언에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말하면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동사구를 형성하는 어미라고 볼 수 있다. 현대국어의 학교 문법에서는 ‘-아/어’, ‘-고’, ‘-게’, ‘-지’의 경우 보조용언을 본용언에 이어 주는 기능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들을 보조적 연결어미로 취급한다.

전통 문법에서는 부사형 어미에 해당된다. 그런데 부사형으로 처리하면 문장성분을 이야기할 때는 부사어로 다루어야 하는 데도 실제로는 뒤에 오는 보조용언과 함께 서술어로 처리하여 모순이 생겼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사형 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로 분류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조용언이 본용언과 연결될 때는 일정한 어미를 요구하는 제약이 있는 현대 문법의 기준에 맞춰서 파악한다. 즉, 보조적 연결어미를 ‘-아/어’, ‘-고’, ‘-게’, ‘디(>지)’로 파악하고 각각의 어미들과 결합할 수 있는 보조용언의 경우가 제한적³⁹⁾이므로, 보조적 연결어미와 이것과 결합하여 쓰이는 보조용언의 예들을 제시한다. 이럴 때, 보조적 연결어미인 ‘-아/어’, ‘-고’와 양태의 종속적 연결어미 ‘-아/어’, 나열의 대등적 연결어미 ‘-고’와의 구별이 가능할 것이다.

1) -아/어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의 교체 조건은 양태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인 ‘-아/어’의 경우와 같다.

<飜老>와 <老諺>에서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와 결합하는 보조용언은 ‘가다’(진행), ‘오다’(진행), ‘나다’(종결), ‘내다’(종결), ‘브리다’(종결), ‘보다’(시행), ‘주다’(봉사), ‘두다’(보유), ‘놓다’(보유), ‘가지다’(보유), ‘말다’(부정), ‘흐다’(당위), ‘있다’(이시다)’(상태), ‘겨시다’(상태)이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9) 보조적 연결어미와 결합하여 쓰이는 보조용언의 종류에 대해서는 현대 문법의 남기심·고영근(2005)이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 (147) ㄱ. 내 北京 향하야 가노라 (翻老 上 1)
 ㄴ. 내 北京으로 向하야 가노라 (老諺 上 1)
- (148) ㄱ. 또 이 물와 모시뵈 산 오노라 (翻老 上 15)
 ㄴ. 또 이 물과 모시뵈를 산 오노라 (老諺 上 14)
- (149) ㄱ. 그 나그내 뵈여 어즐하얏다가 씨야 나니 (翻老 上 29)
 ㄴ. 그 客人이 뵈여 어즐하얏다가 되 씨야 나니 (老諺 上 26)
- (150) ㄱ. 바다 네 쿡을 건던 내여다가 촌 브레 거터 (翻老 上 24)
 ㄴ. 벗아 네 쿡을 건던 내여다가 촌 물에 것터 (老諺 上 21)
- (151) ㄱ. 닷 량 은을 더러 내여 머르는 갑새 혜오 글월 믹혀 브리라
 (翻老 下 20)
 ㄴ. 닷 냥 은을 더러 내여 머르는 갑새 혜고 쓸월 믹혀 브리라
 (老諺 下 18)
- (152) ㄱ. 도헌 수리니 네 머거 보라 (翻老 上 63)
 ㄴ. 도헌 술이니 네 먹어 보라 (老諺 上 57)
- (153) ㄱ. 나중애 다드라 내 네손디 디우 포라 주마 (翻老 下 23)
 ㄴ. 나중애 다드라 내 너손디 디위 포라 주마 (老諺 下 21)
- (154) ㄱ. 이 물들 다 믹야 두라 더 들흘 히야 닐에 하라 (翻老 上 58)
 ㄴ. 이 물들을 다 믹야 두고 더 들호로 하야 닐게 하라 (老諺 上 52)
- (155) ㄱ. 술위 다 도히 지뵈 드려 노하 두고 눈 비에 젖게 말라 (翻老 下 36)
 ㄴ. 술위 다 도히 집의 드려 노하 두고 雨雪에 젖게 말라 (老諺 下 33)
- (156) ㄱ. 훈 두 량엿 술 고기를 먹고 수울 반만 취하야 가지고 음심 내여
 (翻老 下 54)
 ㄴ. 훈 두 냥엿 술 고기를 먹거 술을 반만 취하야 가지고 淫心을 내여
 (老諺 下 48)
- (157) ㄱ. 구퓌여 노하야 말라 (翻老 下 19)
 ㄴ. 구퓌여 노하야 말라 (老諺 下 18)

- (158) ㄱ. 네 브슴 황호 사려 흐는다 (飜老 下 66)
 ㄴ. 네 브슴 황호 사려 흐든다 (老諺 下 59)

- (159) ㄱ. 제 어느 방의 브리어 잇는노 (飜老 下 1)
 ㄴ. 제 어느 방의 브리워 잇는노 (老諺 下 1)

- (160) ㄱ. 내 아리 흐 두 번 든년마론 다 니즈니 어디 싱각흐야 이시리오
 (飜老 上 60)
 ㄴ. 내 아래 흐 두 번 든년마는 다 니저시니 어디 싱각흐리오
 (老諺 上 54)

- (161) ㄱ. 이제 도덩이 던하를 一統흐야 겨시니 세간에 쁘노니 漢人의 마리니 우리 이 高麗人 말소문 (飜老 上 5)
 ㄴ. 이제 朝廷이 天下를 一統흐여시니 세간에 쁘는거슨 한말이니 우리 이 高麗말은 (老諺 上 4)

사용 빈도수는 아래의 표로 대신하고자 한다.

〈표 3〉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와 결합하는 보조용언

문헌 자료	보조용언		진행			종결		시행	봉사
	가다	오다	나다	내다	브리다	보다	주다		
飜譯老乞大 (총 138)	43	57	1	11	3	11	12		
老乞大諺解 (총 127)	37	55	2	7	3	11	12		
문헌 자료	보조용언			부정	당위	상태			
	두다	놓다	가지다	말다	흐다	잇다 (이시다)	겨시다		
飜譯老乞大 (총 66)	9	1	2	1	11	41	1		
老乞大諺解 (총 35)	7	1	2	2	8	15	-		

*각 숫자는 사용 횟수임.

위의 표를 보면,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와 보조용언 ‘잇다’의 결합 횟수가

<翻老>와 <老諺>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翻老>에서는 어미 ‘-아/어’와 보조용언 ‘있다(이시다)’가 결합하는 형태를 띠다가 <老諺>에 오면서 ‘잇(이시)-’이 탈락하여 하나로 결합된 형태로 쓰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162, 163, 164)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62) ㄱ. 술윗통엿 구뭇 부리 돌이로 바가 잇는 쇠 술윗통 구무 안히 달티 아니케 (翻老 下 36)

ㄴ. 술윗통엿 구무 부리 도리로 박은 쇠 술윗 통 안히 달티 아니케 (老諺 下 32)

(163) ㄱ. 내 아리 혼 두 번 돈년마른 다 니즈니 어디 생각하야 이시리오 (翻老 上 60)

ㄴ. 내 아래 혼 두 번 돈년마는 다 니저시니 어디 생각하리오 (老諺 上 54)

(164) ㄱ. 다 일즉 문디 아니하야 잇다니 성이 무스것고 (翻老 上 15)

ㄴ. 다 일즉 문디 아니 하엿더니 姓이 무스것고 (老諺 上 14)

이것은 ‘-아/어+있다(이시다)’에서 ‘잇(이시)-’을 탈락시킴으로써 음을 간소화시켜 발음한 것으로 言衆이 발음을 하는 데 드는 노력을 절약하려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고

‘-고’는 보조용언 ‘있다’와 결합하여 행동의 진행을 나타낸다.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 연결어미 ‘-고’가 쓰인 경우는 드문데 <翻老>와 <老諺>에서도 연결어미 ‘-고’는 그 쓰임이 1회이다.

(165) ㄱ. 저는 얼운다이 정면 좌에 안자 어딘 남신인 양으로 하고 잇거든 (翻老 下 54)

ㄴ. 저는 그저 얼운다이 정면으로 안자 어딘 남진 테 하거든 (老諺 下 49)

3) -게

‘-게’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에 도달하거나 사역의 뜻을 갖게 하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중세국어에서는 ‘-게’ 이외에 ‘-기/지’가 있었으나 16세기에 소멸함으로써⁴⁰⁾ 근대국어부터 ‘-게’의 형태로 통일되어 현대에 이른 것이다.

‘-게’와 결합할 수 있는 용언은 ‘되다’(피동), ‘하다’(사동), ‘말다’(부정)인데 <飜老>와 <老諺>에서는 ‘되다’(피동)와 결합한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166, 167)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166) ㄱ. 이제 히여곰 가져 오게 호마 (飜老 上 56)
ㄴ. 이제 히여곰 가져 오게 호마 (老諺 上 51)

- (167) ㄱ. 이 사흐론 디플다가 콩 우희 듭고 블 딘디 말오 김 나게 말라 (飜老 上 20)
ㄴ. 이 싸흔 딤흘다가 콩 우희 듭고 블 씻디 말고 김 나게 말라 (老諺 上 18)

그런데 ‘-게’는 ‘하다’(사동), ‘말다’(부정) 이외의 용언과도 결합하는 양상을 <飜老>와 <老諺>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68) ㄱ. 넙발치 조즌 고기를 사다가 편 궂게 사흐라 붓가 오라 (飜老 上 21)
ㄴ. 넙팔지 브튼 고기를 사다가 편 궂게 싸흐라 붓가 가져오라 (老諺 上 19)
- (169) ㄱ. 또 구시에 평케 주어 긋 새배 다든게 말라 (飜老 上 32)
ㄴ. 또 귀요에 쭈케 주어 잇긋 새배 다듯게 말라 (飜老 上 29)

(168, 169)에 쓰인 ‘-게’는 선행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 후행하는 용언을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사용 빈도수를 확인해 보면 ‘하다’(사동)와 결합한 경우는 <飜老> 32회, <老諺> 35회이다. 그리고 ‘말다’(부정)와 결합한 경우는 <飜老> 7회, <老諺> 7회이다. 기타의 경우는 <飜老> 5회, <老諺> 5회이다.

40) 안병희·이광호(1997), 앞의 책, p.315.

4) -디(-ㄴ동, -르동, -르똥)

‘-디(-ㄴ동, -르동, -르똥)’⁴¹⁾는 부정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뒤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아니하다’, ‘못하다(못하다)’, ‘말다’가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는 ‘-디’ 이외에 ‘-ㄴ들’, ‘-ㄴ동’, ‘-드란’ 등이 있었다. <飜老>와 <老諺>에서도 드물지만 ‘-ㄴ동’이 보이며 이 밖에 ‘-르동’, ‘-르똥’도 보인다. 이 가운데서 중세국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디’였는데 근대국어 이후에 ‘-디’가 구개음화된 ‘-지’가 나타나 혼용되다가 현대국어에 와서 ‘-지’로 확립되었다.

- (170) ㄱ. 이 짐승들히 먹디 아니허리 만허니라 (飜老 上 18)
 ㄴ. 이 짐승들이 먹디 아니허리 만허니라 (老諺 上 16)
- (171) ㄱ. 내 밧바 겨를 어더 가디 못허리로다 네 보라 가라 (飜老 上 67)
 ㄴ. 내 밧바 곁을 어더 가디 못허리로다 네 보라 가라 (老諺 上 61)
- (172) ㄱ. 주인하 안직 가디 마르쇼셔 (飜老 上 31)
 ㄴ. 主人아 아직 가디 말라 (老諺 上 28)
- (173) ㄱ. 정히 거긋 거슨 맛당하고 진짓 거슨 맛당티 아니허니라 (飜老 下 67)
 ㄴ. 정히 거긋 거슨 맛당하고 진짓 거슨 맛당티 아니허니라 (老諺 下 60)

(170, 171, 172, 173)은 ‘-디’에 보조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못하다)’⁴²⁾, ‘말다’가 결합한 경우이다.

- (174) ㄱ. 이 읍 둥에서 진짓 거신동 거긋 거신동 우리 高麗人 사롬이 아디 못
 허노니 (飜老 下 64)
 ㄴ. 이 銀人 둥에 진짓 씨신동 거긋 씨신동 우리 高麗人 사롬이 아디 못
 허니 (老諺 下 58)

41) <飜老>에서는 ‘-르동’의 받침이 ‘ㅇ’이고, <老諺>에서는 ‘-르동’의 받침이 ‘ㅇ’이다. 이것은 근대국어 들어서 ‘ㅇ’이 사라지고 ‘ㅇ’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르동’, ‘-르똥’의 구분 없이 대표형을 ‘-르동’으로 정하여 받침을 ‘ㅇ’으로 통일한다.

42) <飜老>에는 ‘못하다’, <老諺>에서는 ‘못하다’로 나타나는 것은 중세국어에서 쓰이던 8중성이 근대국어에 들어오면서 7중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받침 ‘ㄷ’이 ‘ㅅ’으로 쓰인 결과이다.

- (175) ㄱ. 우리 사르미 오늘 주글동 리실 주글동 모르는 거시니 (飜老 下 41)
 ㄴ. 우리 사름이 오늘 죽을똥 니일 죽을똥 아디 못흐니 (老諺 下 37)

(174ㄱ)의 ‘-ㄴ동’은 현대국어에서 ‘-(으)ㄴ지’로 해석되는데 막연한 의심을 나타낸다. 또 (175ㄱ)의 ‘-ㄴ동’, (175ㄴ) ‘-ㄴ똥’은 현대국어에서 ‘-(으)ㄴ지’로 해석되는데 의미적으로 추측·의심을 나타낸다. ‘-ㄴ동, -ㄴ똥, -ㄴ똥’은 서술어로 항상 ‘모르-’나 ‘몰흐-(못흐-)’가 오는데 두 번 반복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飜老>의 ‘-ㄴ동’이 <老諺>에서 ‘-ㄴ똥’으로 쓰인 것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그대로 표기한 결과인 것 같다.

부정 대상의 보조적 연결어미 ‘-디(-ㄴ동, -ㄴ똥, -ㄴ똥)’가 쓰인 경우를 찾아서 빈도수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부정 대상의 보조적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보조용언

문헌 자료	-디		-ㄴ동	-ㄴ똥	-ㄴ똥
	아니하다	몰흐다 (못흐다)	말다	몰흐다 (못흐다)	모르다
飜譯老乞大 (총 188)	69	68	47	2	2
老乞大諺解 (총 206)	74	77	51	2	-

*각 숫자는 사용 횟수임.

4. 연결어미 비교의 결과

이상으로 <飜老>와 <老諺>에서 쓰인 연결어미를 기능에 따라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누고 다시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는 의미에 따라 더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飜老>와 <老諺>에서 쓰인 연결어미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등적 연결어미>

- 1) 나열: -고(-오), -고서, -니
- 2) 병행: -며, -며서
- 3) 상반: -나, -건마론(-건마른, -언마론), -건마논(-언마논)

<종속적 연결어미>

- 1) 원인·이유: -니, -때, -놀(-늘), -르시
- 2) 조건·가정: -면, -든, -ㄴ디(-ㄴ되), -건대(-건테), -르던대(-르쎄대), -르던댄, -아샤(-어샤), -어사, -아야(-어야), -아, -에야, -고샤(-고야)
- 3) 양보: -ㄹ(-되), -ㄴ들(-ㄴ들), -니와, -아도/어도(-라도)
- 4) 목적: -라(-러)
- 5) 의향·의도: -려
- 6) 희망·희구: -고져(-오져, -고자, -져, -자), -아져
- 7) 한도: -도록
- 8) 연속: -락
- 9) 양태: -아/어
- 10) 수단·방법: -아서/어서
- 11) 중단: -다가
- 12) 긍정 대상: -디위

<보조적 연결어미>

- 아/어, -고, -게, -디(-ㄴ동, -르동, -르똥)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음운론적인 조건이나 형태론적인 조건에 따른 교체 현상이 엄격하게 지켜져서 연결어미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6세기 중세국어인 <翻老>에서는 이러한 교체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고 <老諺>에 오면 교체 조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되므로 연결어미들이 일부 형태로 통일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연결어미의 종류가 다양했으나 <翻老>와 <老諺>에 오면 연결어미가 간이화되는 경향을 띤다. 이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운론적인 조건이나 형태론적인 조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던 연결어미가 일부 형태로 통일되는 경향을 띤다.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지던 음운론적·형태론적인 조건에 따른

연결어미의 교체가 16세기 중세국어인 <翻老>에서는 그 교체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몇몇 경우가 보인다. 그리고 17세기 근대국어인 <老諺>에 오면 교체 조건에 상관없이 연결어미가 일부 형태로 통일되어 쓰이게 되는 것이다. 조건·가정의 종속적 연결어미 중에서 ‘-든’, ‘-ㄴ대(-ㄴ테)’와 선어말어미 ‘-거-’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음운론적·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들의 쓰임을 보면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든’은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반드시 선어말어미 ‘-거-’에 통합되어서 ‘-거든’이 하나의 연결어미와 같은 기능을 했다. <翻老>에서는 음운론적인 교체 조건에 따라 ‘-어든’으로 바뀌었지만 근대국어인 <老諺>에서는 교체 조건에 상관없이 대부분 ‘-거든’으로 통일되어 쓰인다. 예를 들어, 동사 ‘먹-’에 ‘-거든’이 결합할 때 <翻老>에서는 ‘머거든’으로 쓰이지만 <老諺>에서는 ‘머거든’, ‘먹어든’, ‘먹거든’이 혼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먹어든’은 근대국어 들어 분철이 확대되면서 어원을 밝혀 적으려는 言衆의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변화 과정을 ‘머거든>먹어든>먹거든’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음운론적·형태론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거든’ 형태로 단순화되어 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건·가정의 연결어미 ‘-ㄴ대’에 선어말어미 ‘-거-’가 결합한 ‘-건대’와 또 다른 형태인 ‘-건테’는 <老諺>에 오면 이형태인 ‘-언대, -언테’는 보이지 않고 ‘-건대, -건테’ 형태로 통일되어 쓰이고 있다.

둘째, 연결어미가 간이화되는 경향을 띤다.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나열의 대등적 연결어미에 ‘-고’ 계열인 ‘-고, -곤, -곰, -곡’ 외에도 ‘-고도, -오도’가 있어서 그 종류가 다양했지만 <翻老>에 오면 주로 ‘-고(-오)’로 쓰이고 있다. 그러다가 <老諺>에서는 ‘-오’의 쓰임도 줄어들어 ‘-고’의 쓰임이 활발해지면서 나열의 연결어미는 ‘-고’로 간이화되는 경향을 띤다.

병행의 대등적 연결어미도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며, -리며, -며셔, -명’ 등으로 종류가 다양했지만 <翻老>와 <老諺>에 오면 ‘-며셔’와 ‘-며’로 종류가 간단해진다. ‘-며셔’는 사용 빈도수가 적고 ‘-며’의 쓰임이 활발하여 병행의 연결어미는 ‘-며’로 간이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한도의 종속적 연결어미를 보면,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대표형태가 ‘-ㄷ록’이고 ‘-도록’은 드물었는데 <翻老>와 <老諺>에서는 ‘-도록’ 형태만 보인다. 이것은

‘-드록’과 ‘-도록’ 두 가지 형태이던 한도의 연결어미가 ‘-도록’ 한 가지 형태로 간이화되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희망·희구의 종속적 연결어미를 보면,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고저’와 ‘-과더’가 일반적으로 쓰였고 ‘-과더여’, ‘-긋고’ 등이 더 있었지만 <飜老>와 <老諺>에서는 그 종류가 줄어서 주로 ‘-고저’ 형태가 쓰인다. 그리고 <飜老>에서는 ‘-고저’의 이형태인 ‘-오저’와 또 다른 형태인 ‘-고자’, ‘-저’가 쓰이지만 <老諺>에 오면 대체로 ‘-고저’로 간이화되어 쓰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5세기 중세국어에서 엄격하던 연결어미의 교체 현상이 16세기 중세국어인 <飜老>에서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만 근대국어인 <老諺>으로 오면 음운론적·형태론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연결어미들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정한 교체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서 연결어미의 종류 역시 근대국어로 올수록 간이화되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飜老>와 <老諺>에 쓰인 연결어미의 종류와 사용 빈도수를 총괄하면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5〉 대등적 연결어미의 종류와 사용 빈도수

기능에 따른 분류	의미에 따른 분류	종 류		사 용 빈 도 수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계
대등적 연결어미	나열	-고 (-오)	-고	176	255	575
			-오	100	44	
		-고셔		1	1	2
		-니		2	-	2
	병행	-며		58	43	101
		-며셔		3	1	4
	상반	-나	-나	3	4	12
			-나~-나 (-거나~-거나)	3	2	
		-건마른, -건마는	-건마른 (-건마른, -언마른)	3	-	5
			-건마는(-언마는)	-	2	

*각 숫자는 사용 횟수임.

〈표 6〉 종속적 연결어미의 종류와 사용 빈도수

기능에 따른 분류	의미에 따른 분류	종 류		사용 빈도수			
				翻譯老乞大	老乞大諺解	계	
종속적 연결어미	원인·이유	-니		303	324	627	
		-매		7	6	13	
		-놀(-놀)	-놀	6	6	20	
			-놀	7	1		
		-르시		6	1	7	
	조건·가정	-면		109	127	236	
		-든		94	91	185	
		-ㄴ디(-ㄴ디), -건대(-건데)	-ㄴ디	5	6	17	
			-ㄴ디	1	-		
			-건대(-건데)	-	5		
		-르던대 (-르뎌대), -르던뎌	-르던대	-	1	6	
			르뎌대	-	2		
			-르던뎌	3	-		
		-아샤(-어샤), -어샤, -아야(-어야), -아, -에야	-아샤(-어샤)		13	-	24
			-어샤		1	-	
			-아야(-어야)		-	8	
			-아		-	1	
			-에야		-	1	
	-고샤(-고야)	-고샤		2	-	4	
		-고야		-	2		
	양보	-디(-되)	-오디		46	26	109
			-우디		3	-	
			오되		-	12	
			-(으)디		7	-	
-(으)되			-	15			

기능에 따른 분류	의미에 따른 분류	종 류		사용 빈도수		
				翻譯老乞大	老乞大諺解	계
종속적 연결어미	양보	-ㄴ 들(-ㄴ 들)		2	1	3
		-니와		21	21	42
		-아도/어도 (-라도)	-아도/어도	20	15	45
			-라도	7	3	
	목적	-라(-리)	-라	55	56	116
			-리	1	4	
	의향·의도	-려	-오려	7	-	28
			-려	6	15	
	희망·희구	-고져 (-오져, -고자, -저, -자)	-고져	18	21	49
			-오져	5	-	
			-고자	1	-	
			-저	2	-	
			-자	-	2	
		-아져	1	1	2	
	한도	-도록	6	3	9	
	연속	-락	4	2	6	
	양태	-아/어	-아/어	380	369	889
히려			64	25		
히려			-	51		
수단·방법	-아서/어서	21	19	40		
중단	-다가	27	26	53		
긍정 대상	-디위	1	-	1		

*각 숫자는 사용 횟수임.

〈표 7〉 보조적 연결어미의 종류와 사용 빈도수

기능에 따른 분류	종 류	보조적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보조용언		사용 빈도수		
				翻譯老乞大	老乞大諺解	계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	진행	가다	43	37	366
			오다	57	55	
		종결	나다	1	2	
			내다	11	7	
			버리다	3	3	
		시행	보다	11	11	
		봉사	주다	12	12	
			두다	9	7	
		보유	놓다	1	1	
			가지다	2	2	
			부정	말다	1	
		당위	흐다	11	8	
			상태	있다(이시다)	41	
		겨시다		1	-	
	-고	진행	있다	1	-	1
	-게	사동	흐다	32	35	91
			부정	말다	7	
		기타		5	5	
	-디 (-디동, -디동, 디똥)	-디	아니 흐다	69	74	394
			묻 흐다(못 흐다)	68	77	
말다			47	51		
-디동		묻 흐다(못 흐다)	2	2		
-디동		모르다	2	-		
-디똥		묻 흐다(못 흐다)	-	2		

*각 숫자는 사용 횟수임.

IV. 결 론

이상으로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비교를 통해 16세기 초의 중세국어에서 17세기 말의 근대국어로 이어지는 연결어미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 쓰인 연결어미를 기능에 따라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눈 다음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의미에 따라 더 세분하였다. 대등적 연결어미는 의미에 따라 ‘나열’, ‘병행’, ‘상반’으로 나누고, 종속적 연결어미는 의미에 따라 ‘원인·이유’, ‘조건·가정’, ‘양보’, ‘목적’, ‘의향·의도’, ‘희망·희구’, ‘한도’, ‘연속’, ‘양태’, ‘수단·방법’, ‘중단’, ‘긍정 대상’으로 나누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결어미 중에서 사용 빈도수가 활발하거나 형태나 쓰임이 특이한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등적 연결어미에서 나열을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고(-오)’, ‘-고셔’, ‘-니’이고, 병행을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며’, ‘-며셔’이며, 상반을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나’, ‘-건마른(-건마른, -언마른), -건마는(-언마는)’이다. 이 중에서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 사용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은 ‘-고’(575회)와 ‘-며’(101회)로 현대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도 활발하게 쓰이는 대등적 연결어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열의 연결어미 ‘-고’는 중세국어인 「翻譯老乞大」에서는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기’가 탈락하여 ‘-오’로 바뀌었는데 근대국어인 「老乞大諺解」로 오면 교체 환경에 상관없이 ‘-오’의 쓰임이 줄어들고 ‘-고’의 쓰임이 더욱 확대된다. 이것은 사용 빈도수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데 「翻譯老乞大」에서 100회이던 ‘-오’의 쓰임이 「老乞大諺解」에서는 44회로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고셔’는 나열의 연결어미 ‘-고’에 보조사 ‘-셔’가 연결되어 형성된 것이고, ‘-니’는 ‘-니~-니’처럼 두 번 쓰이면서 동사구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병행의 연결어미 ‘-며’는 문장을 단순히 병행으로 연결하지만 ‘-며셔’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동시에 병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며’와는 약간의 의미적 차이가 있다.

상반의 연결어미 ‘-나’는 상반되거나 양보를 나타내는 어미로 그 형태와 쓰임이 현대국어와 동일하다. 그런데 ‘-나’가 연결어미로서 동사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건마련’은 동사구를 구성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고 두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종속적 연결어미에서 원인·이유를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니’, ‘-때’, ‘-닐(-늘)’, ‘-르시’이고, 조건·가정을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면’, ‘-든’, ‘-ㄴ디(-ㄴ되)’, ‘-건대(-건테)’, ‘-르던대(-르뎌대)’, ‘-르던텐’, ‘-아샤(-어샤)’, ‘-어샤’, ‘-아야(-어야)’, ‘-아’, ‘-에야’, ‘-고샤(-고야)’이고, 양보를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디(-되)’, ‘-ㄴ들(-ㄴ들)’, ‘-니와’, ‘-아도/어도(-라도)’이다. 목적을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라(-러)’이고, 의향·의도를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려’이고, 희망·회구를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고져(-오져, -고자, -져, -쟈)’, ‘-아져’이다. 한도를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도록’이고, 연속을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락’이고, 양태를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아/어’이다. 수단·방법을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아서/어서’이고, 중단을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다가’이고, 긍정 대상을 의미하는 연결어미는 ‘-디위’이다.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의 특징은 선행절 사건시가 후행절 사건시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서 대부분 선행절이 후행절 사건의 배경이 된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니’는 서술격조사의 어간 ‘이-’와 결합하여 쓰이거나 ‘-느-’, ‘-리-’, ‘-더’, ‘-거-’ 등 다양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데 사용 빈도수가 627회나 되어 그 쓰임이 아주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닐(-늘)’은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 반드시 과거 시상 선어말어미 ‘-거-’에 후행하여 쓰여서 마치 하나의 연결어미와 같은 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건·가정의 연결어미 중에서 ‘-면’은 후행절이 성립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절을 이끄는 데, 사용 빈도수가 236회로 그 쓰임이 활발하다. ‘-든’은 반드시 선어말어미 ‘-거-’에 통합되어서 쓰인다. 그리고 1회이기는 하지만 19세기 문헌에서 많이 쓰이던 ‘-ㄴ디’의 변이형태인 ‘-ㄴ되’가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중세국어인 「翻譯老乞大」에서 쓰이던 ‘-아샤(-어샤)’는 ‘△’의 소실로 근대국어인 「老乞大諺解」에서는 ‘-아야(-어야)’ 형태로 굳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양보의 연결어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쓰인 것은 ‘-디(-되)’인데 사용 빈도수가 109회이다. 「翻譯老乞大」에서는 주로 ‘-디’ 형태가 쓰이다가 「老乞大諺解」로

오면 ‘-되’ 형태로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 ‘-니와’는 반드시 선어말어미 ‘-거’와 결합하여 쓰인다.

목적의 연결어미 ‘-라(-러)’는 뒤에 거의 동사 ‘가다’, ‘오다’가 나타난다. 그 쓰임도 활발하여 116회이다.

의향·의도의 연결어미 ‘-려’는 중세국어에서는 항상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오/우-’를 앞세우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근대국어에 와서 의도법이 소멸됨에 따라 그 특성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희망·희구의 연결어미 ‘-고저’는 15세기에는 ‘원하다, 스랑하다, 브라다, 너기다’ 등의 말이 이어나고 또 ‘하다’도 이어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16세기에는 주로 ‘하다’가 연결되어 쓰이는데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는 동사 ‘하다’가 뒤따른다.

한도의 연결어미 ‘-도록’은 15세기에는 ‘-드록’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도록’은 간혹 나타났으나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는 ‘-도록’ 형태를 보인다.

연속의 연결어미는 ‘-락’인데 대부분 ‘-락~-락’처럼 ‘-락’이 두 번 반복해서 쓰여 동사구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양태의 연결어미 ‘-아/어’는 사용 빈도수가 889회로 연결어미 중에서 가장 활발한 쓰임을 보인다. 특히, 동사 ‘하-’와 결합할 때 「翻譯老乞大」에서는 ‘하야’로 쓰였지만 「老乞大諺解」에 오면 ‘하야’보다 ‘하여’의 쓰임이 더 활발해진다. ‘하여’는 18세기 초에 첫음절에서 ‘·’의 음가가 상실하면서 표기는 ‘하여’지만 [하여]로 발음되다가 1933년 이후 ‘·’의 표기도 사라지면서 현대국어의 ‘하여’로 음가와 표기가 일치되어 완전히 정착된 것이다.

수단·방법의 연결어미 ‘-아서/어서’는 선행 동사 어간에 통합되어 후행 동사의 결과에 대하여 ‘수단·방법’의 의미를 갖는다.

중단의 연결어미 ‘-다가’는 계속되던 동작이나 상태가 그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가 이어질 때 쓰이는 연결어미이다.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 중에서 쓰임이 활발하여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것은 ‘-아/어’(종속적) 889회, ‘-니’(종속적) 627회, ‘-고’(대등적) 575회, ‘-면’(종속적) 236회, ‘-든’(종속적) 185회, ‘-라(-러)’(종속적) 116회, ‘-디(-되)’(종속적) 109회, ‘-며’(대등적) 101회이다. 즉, 구어체로

쓰인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연결어미는 현대국어의 구어체에서도 쓰임이 활발한 것들이다.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만으로 16세기와 17세기의 구어체에서 쓰이는 연결어미의 쓰임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용 빈도수의 양적인 면에서 볼 때 16세기와 17세기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보조적 연결어미는 전통 문법에서 부사형 어미로 취급되던 것으로 ‘-아/어’, ‘-고’, ‘-게’, ‘-디’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기 보다는 동사구를 형성하는 어미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조적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보조용언의 경우는 제한적이다.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보조적 연결어미는 ‘-아/어’(366회)와 ‘-디’(394회)이다.

그리고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비교를 통해서 두 가지의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음운론적인 조건이나 형태론적인 조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던 연결어미가 일부 형태로 통일되는 경향을 띤다. 둘째, 연결어미가 간이화되는 경향을 띤다.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엄격하던 연결어미의 교체 현상이 16세기 중세국어인 「翻譯老乞大」에서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만 근대국어인 「老乞大諺解」로 오면 음운론적·형태론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연결어미들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정한 교체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서 연결어미의 종류 역시 근대국어로 올수록 간이화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자 료

- 「翻譯老乞大 卷 上」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인, 1972.
「翻譯老乞大 卷 下」 인하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영인, 1975.
「老乞大, 老乞大諺解(上·下)」,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2003.
백응진(1997), 「老乞大」, 한국문화사.

□ 단행본

- 고영근(200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국립국어연구원(1997),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2 -근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김동소(198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김문웅(1987), 「근대국어 문법형태의 변천 -노걸대언해와 중간노걸대언해의 비교를 통하여-」,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남기심·고영근(2005), 「표준국어문법론」, 탐출판사.
리의도(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백낙천(2003), 「국어의 통합형 접속어미」, 도서출판 월인.
안병희·이광호(1997),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유창돈(2005),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광호(2004), 「근대국어문법론」, 태학사.
이기문(1986), 「국어사개설」, 탐출판사.
이승욱(1973), “18세기 국어의 형태론적 특징”, 「국어문법체계의 사적연구」, 일조각.
이익섭·채완(2000),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이주행(1993), 「현대국어 문법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주행(2004), 「한국어 문법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 정 광(2006),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신구문화사.
- 최현배(1955),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하치근(2002), 「현대우리말본」, 도서출판 박이정.
- 한말연구학회(1998), 「국어사 강독선」, 도서출판 박이정.
- 허 응(1983),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_____ (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논문

- 강재진(1982), “노걸대 박통사 연구 3-1”, 「중국어문학」, 5, 영남대학교.
- 고영근(1975), “현대국어의 어말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응용 언어학」, 7-1,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소.
- 구현정(1999), “조건 범주의 문법화”, 「우리말 의미학」, 4, 우리말 의미학회.
- 권속도(1985), “노걸대제서의 번역어에 나타난 서법어미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기주연(1986), “노걸대의 언해상 비교연구”, 「송실어문」, 3, 송실어문학회.
- 김문용(1984), “근대 국어의 표기와 음운”, 「한글」, 185, 한글학회.
- 김성란(2003), “<노걸대>류 언해본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김소영(1997), “19세기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언주(1989),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비교연구 -형태, 통어면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지」, 26, 문창어문학회.
- 김완진(1976), “노걸대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연구총서」, 31, 한국연구원.
- 김태곤(1984), “고시조에 쓰인 종결어미 연구”, 「한국언어문학」, 23, 한국언어학회.
- _____ (1987), “연결어미 연구 -옛 시가를 중심으로-”, 「백록어문」, 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 김형철(1977),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비교”,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_____ (1980),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비교”, 「문학과 언어」, 1-1, 문학과언어연구회.
- 박태권(1967), “노박집람 소고”, 「국어국문학」, 34, 35, 국어국문학회.
- _____ (1996), “최세진의 「노걸대언해」 연구”, 「세종학연구」, 1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향숙(1992), “노걸대 언해류의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희용(1988), “노걸대의 언해와 번역에 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미란(1994), “노걸대의 특수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재극(1967), “번역노걸대의 어휘”, 한국어문학회연구논총.
- 석주연(1998), “노걸대류 박통사류 이본들의 ‘-거/어-’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3-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손성지(1992),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어미체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신한승(1990), “노걸대언해본 비교연구(2)”, 「한성어문학」, 9,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 _____ (1991), “노걸대의 언해본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 _____ (1992), “노걸대 언해본의 연구(3) -어휘변천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11,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 안주호(2002),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고찰 -〈노걸대언해〉류를 중심으로-”, 「언어학」, 34, 한국언어학회.
- 양태식(1980), “「번역노걸대」의 서법소”, 「논문집」, 25, 부산수산대학교.
- 이병주(1965), “노박집람고구”, 「동국대논문집」, 2, 동국대학교.
- 이향주(1989), “번역노걸대 박통사범례고1”, 「어문논총」, 10, 11, 전남대학교.
- 정병량(1998), “노걸대 언해류의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경미(1996), “「박통사」 「노걸대」 언해에 나타난 의문법의 통시적 연구”, 「국어학」, 27, 국어학회.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nective Endings in
『Byeonyeok-Nogeoldae』 and 『Nogeoldae-Eonhae』

Kim, Hee-sun

A major i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gon

This study aims, with the original text of 『Nogeoldae』, at comparatively examining the connective endings used in 『Byeonyeok-Nogeoldae』 and 『Nogeoldae-Eonhae』, annotated and compiled in Korean in the early 16th century and the late 17th century respectively, idealistic materials for studying language transition of middle-age Korean into modern Korean. The study focuses on illustrating the transition from 『Byeonyeok-Nogeoldae』 into 『Nogeoldae-Eonhae』 by examining the kinds and meanings of connective endings diachronically as well as by looking into the frequency of the use of connective ending.

Chapter II brings up the standard that classifies connective endings of middle-age Korean and of modern Korean, based on the grammar of contemporary Korean. Since every scholar has his or her own criteria to classify connective ending, this paper sets up its standard in classification through proposing lists of connective endings of scholars in functional and semantic aspects. This paper, moreover, presents lists of auxiliary connective ending and supportive inflected words due to the limited cases of supportive inflected words

that go well with auxiliary connective endings.

In Chapter III connective endings are dealt with functional aspect divided into such three endings as equal, subordinate, and auxiliary connective endings. This chapter also examines in detail about the exact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each ending according to semantic relations with preceding phrase and following phrase. Clause 1 examines equal connective endings divided into 'arrangement', 'parallel', and 'contrary' endings, according to their meanings, to analyze usage and change of endings in 「Byeonyeok-Nogeoldae」 and 「Nogeoldae-Eonhae」. Clause 2 illustrates the concrete usage of subordinate connective endings divided into twelve categories: 'cause/reason', 'condition/assumption', 'concession', 'end', 'intent/intention', 'wish/hope', 'limit', 'continuity', 'manner', 'ways/means', 'suspension', and 'affirmation'. Clause 3 is to look into auxiliary connective ending like '-a/eo', '-go', '-ge', '-di' with some examples in 「Byeonyeok-Nogeoldae」 and 「Nogeoldae-Eonhae」. Clause 4 shows a table that tells about frequencies of use of connective endings after comparatively analyzing 「Byeonyeok-Nogeoldae」 and 「Nogeoldae-Eonhae」.

With the comparative study on 「Byeonyeok-Nogeoldae」 and 「Nogeoldae-Eonhae」, two characteristic phenomena could be found: first, when replaced in a certain phonological environment, connective ending in 「Nogeoldae-Eonhae」 would tend to be free from morphologic restraint. Secondly, 「Nogeoldae-Eonhae」 shows a tendency of simplification of connective ending more than middle-age Korean. 「Byeonyeok-Nogeoldae」 has a wide range of variants in morphologic restraint, while 「Nogeoldae-Eonhae」 did not abide by morphologic conditions, which resulted in the simplification of connective ending.

* This thesis 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